

성서 번역과 본문비평

김창락*

1. 번역가는 동시에 본문비평가인가?

여기에 요리사가 있다. 그는 닭고기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요리사이다. 그가 지금 요리를 시작하려고 한다.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두말 할 것 없이 그것은 닭이다. 요리사는 닭을 어떻게 구하는가? 아무 요리사도 닭고기 요리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닭을 길러서 사용하지는 않는다. 닭을 기르는 사람은 양계업자이고 기른 닭을 파는 사람은 시장의 상인이다. 요리사는 시장에서 이것을 사다가 요리를 한다. 신약성서의 원본문(原本文, original text)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본문비평가를 양계업자에 비긴다면 본문비평가가 재구성해낸 성서 본문을 책의 모습으로 간행하여 반포하는 사람을 출판업자에 비길 수 있다. 이 원문 성서를 사다가 자기 나라말로 옮기는 번역가는 시장의 진열대에서 닭을 사다가 자기의 솜씨를 발휘하여 요리를 해내는 요리사와 같다.

요리사의 과제는 생산된 닭을 요리하는 것이지 닭을 생산하는 일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요리의 성패는 요리사의 솜씨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닭을 재료로 사용하느냐에 좌우된다. 만약 요리사가 산란용 닭으로서 폐기처분된 폐계(廢鷄)를 모르고 사다가 요리를 한다면 그의 요리 기술이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그의 요리는 실패작이 되고 말 것이다. 성공적인 요리를 하려면 그는 자기가 사용할 닭이 어떤 종류에 속하는 것인지, 토종인지 개량종인지,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먹고 자란 것인지, 등등에 관한 정보에 의거하여 올바르게 선택해야 한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성서 번역자의 과업은 번역의 대본으로 사용할 그 원문 성서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데서 시작된다. 성서 번역자가 어떤 대본이 좋은 것인지를 판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대본이 어떠한 비판 작업을 거쳐서 형성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즉 그는 그대본이 구축되기까지의 본문비평 작업에 관한 내막을

* 전 한신대학교 교수, 신약학.

알아야 하며 그것이 합당한 방법으로 수행되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본문비평이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관한 얼마만큼의 지식은 성공적인 번역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다. 그렇지만 번역자는 전문적인 본문비평가가 될 필요도 없고 될 수도 없다. 그것은 닭 요리 전문가가 스스로 닭을 길러서 요리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이다. 본문비평의 작업 대상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문가라 하더라도 한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이며 원본문에 대한 판단 기준은 너무나 복잡 미묘하여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여러 갈래로 팽팽히 맞서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러므로 번역자가 본문비평 작업 자체에 일일이 끼여든다는 것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드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야구 경기의 관람객이 경기를 잘 감상하는 데는 경기의 주요한 규칙을 알고 심판의 특정한 판정이 공정한 것인지 편파적인 것인지를 판단할 줄 아는 정도면 충분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서 번역자가 그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번역하는 본문이 무슨 판단 기준에 의거하여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립된 것인지를 아는 것과 번역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어떠한 이문(異文)들이 어떠한 증거로 지지되고 있는지를 알고 아주 드문 특수한 경우에 스스로 본문비평적 결정을 새로이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 만일 어떤 번역가가 사역(私譯) 성서를 내려고 한다면 자기의 본문비평적 능력을 자유자재로 발휘해도 상관없겠지만 성서공회와 같은 공적 기관의 위임으로 번역을 한다면 그는 자기의 본문비평적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그 기관이 선정한 번역 대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기의 그 능력 행사를 최대한으로 자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본문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꿈에 좋은 신약성서를 번역하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하자. 이 사람이 이 계시를 따라 당장 번역 작업에 착수하려 한다면 그는 무엇보다도 번역할 대본을 입수해야 한다. 그는 어디에서 이것을 구할 수 있는가? 이것을 구하기 위하여 대영 박물관이나 바티칸 박물관을 찾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어느 서점으로 달려가야 하는가? 물론 서점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서점에는 그리스어 원문으로 된 신약성서가 한 가지 종류만 놓여 있지 않고 발행자뿐만 그 내용까지 상당히 다른 여러 가지 성서들이 진열되어 있다. 어느 것을 골라야 하는가? 성서 번역자는 그 작업 착수의 첫 단계에서부터 이

러한 난제에 부딪친다. 그가 계시를 통하여 직접으로 지시를 받지 않은 이상 그는 자기의 모든 신학적 지식과 신앙 양심에 입각하여 선택을 결정해야 한다. 왜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가? 그것은 신약성서의 저자의 손에서 나온 원래의 문서 그 자체는 오늘날 하나도 보존되어 있지 않고 후대의 사람이 그것을 손으로 베껴 쓴 이른바 필사본(筆寫本)들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어 필사본만 셈하더라도 조그마한 조각들까지 합치면 수가 5,500개가 넘는다. 이 필사본들끼리 비교해 볼 때 본문이 똑같은 것이 단 두 개도 없으므로 어느 것이 원본문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인지 저절로 식별되지 않는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문서의 재생산은 오직 필사 작업에 의존했다. 그런데 필사 작업이라는 것은 아무리 정확하게 원본 그대로 베껴 쓰려고 노력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흔히 생길 수밖에 없다. 어떤 낱말이나 어구를 누락하거나 반복하는 것, 어떤 낱말을 그와 비슷한 다른 낱말로 착각하여 바꾸어 적는 것 따위는 비고의적 실수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와 달리 필사자가 대본을 자기의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고치는 경우도 흔히 있다. 난해한 말을 쉬운 말로 풀어 쓰거나 어색한 표현을 좀더 정교한 표현으로 고쳐 쓰거나 어떤 낱말을 다른 낱말로 대체하거나 어떤 낱말이나 어구를 다른 위치로 옮기거나 어떤 내용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교리적 해석을 덧붙이거나 하는 것 따위는 비록 선한 동기에서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고의적 변개(變改)에 속하는 것들이다. 인쇄술 이전 시기에는 각 지역에 따라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다른 필사본들이 그들 각각의 성격으로 사용되었다. 물론 중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불가타(Vulgata) 라틴어 번역 성경이 그리스어 성경의 권위를 대신하게 되었지만 불가타 성경의 여러 가지 필사본들에 관련된 사정은 그리스어 필사본에 관해서 언급한 사정과 마찬가지로 같다. 필사본들의 가치는 한결같지 않다. 필사본들은 본문의 변경 정도와 변경의 성격에 비추어서 그 가치를 몇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아무리 최고(最高) 양질의 필사본으로 분류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오늘날 그리스어 신약성서 대본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신약성서 번역의 가장 좋은 대본을 구하기 위하여 세계의 유명한 박물관이나 도서관을 찾아가는 것은 쓸데없는 헛수고일 따름이다.

1450년경 구텐베르크(J. Gutenberg)의 인쇄술 발명으로 말미암아 신약성서의 본문 전송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동일한 본문으로 인쇄된 성서가 대량으로 단번에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성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최초의 인쇄된 그리스어 신약성서가 출간된 것은 인쇄된 라틴어 성서가 출간된 지(1455년경) 약 60년의 세월이 지난 후였다. 이렇게 많은 해가 소요된 데는 몇 가지 원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그리스어 활자를 주조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는 사제나 주석가나 할 것 없이 거의 대다수는 라틴어 성경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므로 소수의 특수한 학자들 이외에는 그리스어 원문 성서에 대한 수요가 별로 크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시기에 어느 누구도 기존의 그리스어 사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것을 그대로 인쇄해서 신약성서로 반포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어느 사본도 있는 그대로 성서로 사용되기에는 결함이 있음을 인정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지만 그 당시로는 아직 아무도 어떠한 사본들이 어디 어디에 소재해 있는지 알지 못했고, 또한 각 사본의 질이 어떠한 것인지도, 그 사본들이 질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출될 그리스어 신약성서는 수많은 문제점을 배태하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 최초의 인쇄본으로 출간될 그리스어 신약성서가 결점투성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제약성 때문만이 아니고 제작상의 조급성 때문이기도 하다.

최초의 인쇄본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출간에서부터 이른바 ‘텍스투스 레셉투스’(textus receptus=received text)의 확립에 이르기까지 약 100년 기간에 출간된 여러 가지 신약성서들은 본문비평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성서 본문을 구성하는 일을 제가끔 담당할 학자 세 사람과 그들이 구성해낸 성서를 발행하는 출판업자 네 사람이 핵심 인물로 등장한다. 세 학자의 이름은 화란의 인문주의 학자인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칼빈(J. Calvin)의 친구요 후계자로 바젤에서 활약한 베자(Theodorus Beza), 스페인의 주교 겸 추기경 히메네스(Francisco Ximenes)이며 출판업자의 이름은 바젤의 프로벤(Johann Froben), 파리의 스테파누스(Robert Stephanus, 불어로는 Estienne라 부름), 화란의 라이텐의 엘제비어(Bonabentura & Abraham Elzevir)형제이다. 최초의 인쇄본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출간을 촉발한 사람은 바젤의 출판업자 프로벤이었다. 프로벤은 1514년 8월 바젤 방문 중에 있는 에라스무스에게 상당한 보수를 약속하면서 그리스어 신약성서 본문의 조속한 구축을 의뢰했다. 그가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출판을 급히 서두른 데는 그의 사업가로서의 안목이 크게 작용했다. 그는 그리스어 신약성서가 히메네스의 주도로 스페인에서 곧 출판된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선수(先手)를 치는 것이 사업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성서는 전체 여섯 권으로 구성된 다언어(多言語) 신약성서인데 1-4권은 구약성서이며 제5권이 신약성서로서 그리스어 본문과 불가타(Vulgata) 본문을 대조해 놓은 것이다. 이 성서는 『콤폴루툼 다언어 성서』(Complutensian Polyglot)라 한다. (이 성서의 제작에는 Alcalá 대학의 언어학자들이 다수 참여했는데 Complutum은 Alcalá의 라틴식 이름이다.) 사실 이 성서는 1514년 10월 1일에 인쇄가 완료되었으나 교황 레오(Leo) 10세의 재가를 받아 세상에 반포된 것은 1522년이였다. 그래서 이 성서는 실제로는 최초로 인쇄되었지만 최초의 인쇄본 성서였다는 영예를 차지하는 데 실패했다.

에라스무스는 1515년 6월에 바젤에 돌아와서 그리스어 신약성서 본문을 조성(組成)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먼저 신약성서 사본을 입수해야 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가 입수한 사본들은 12세기 이후에 필사된 몇몇 소문자 사본들뿐이었다. 이 사본들 가운데 어느 것도 신약성서 전체를 포함한 것은 없었다. 그는 주로 소문자 2번 사본을 앞에 놓고 다른 두세 개 사본들과 대조하여 몇몇 군데를 수정했다. 요한 계시록 사본은 그의 친구 로이히린(Johannes Reuchlin)에게서 빌려와야 했는데 불행히도 22장 16-21절이 들어있는 마지막 장(帳)이 탈락되어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는 이 여섯 절을 불가타 본문에서 손수 그리스어로 역번역(逆翻譯)하여 채워 넣었다. 그런데 우스운 사실은 그가 번역해 내놓은 이 여섯 절과 일치하는 사본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과 텍스투스 레셉투스에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계시록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도 특히 묵시문학과 관련된 본문들을 불가타 성서에 맞추어서 많이 수정했다. 이렇게 구축된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성서는 1516년 3월 1일에 출판되었다. 그러니까 이 최초의 인쇄본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출간은 자료 수집 작업, 편집 작업, 인쇄 작업을 모두 합해서 채 1년도 안 되는 단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초판에 오식(誤植)이 수백 개나 발견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에라스무스 성서는 3년 안에 3,300부나 매진되었고 나중에는 베니스, 슈트라우스부르크, 바젤, 파리 등지에서 비공식으로 30여 종류나 출판되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성서는 거센 비난도 받았다. 비난의 가장 큰 근거의 하나는 중요한 삼위일체 교리가 담긴 요한일서 5장 7-8절이 빠졌다는 것이며(그런데 이 구절은 제3판에 끼워 넣었다) 다른 하나는 에라스무스가 유려한 필체로 번역하여 제시해 놓은 라틴 역본이 불가타와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그는 1519년에 제2판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루터(M. Luther)의 성서 번역에 대본으로 사용되었다. 제3판의 출간은 1522년인데 이 해에 『콤폴루툼

다언어 성서』가 세상에 반포되었다. 이 성서의 본문은 에라스무스 성서의 본문보다 우수했다. 왜냐하면 이 성서의 편집에는 많은 학자들이 동원되고 십 수년 이상의 긴 시간이 투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용된 사본들은 에라스무스가 의존한 사본들에 비하여 질이 우수한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에라스무스는 곧 자기의 성서를 이 다언어 성서와 비교하여 많은 부분을 수정했다. 그는 1527년에 제4판을 출간하면서 이 다언어 성서를 참조하여 요한 계시록에 90여 곳을 수정하여 내놓았다. 1535년에 출간된 제5판은 불가타 본문을 제거했다는 점 이외에 그리스어 본문에 관한 한 제4판과 다름이 없었다.

에라스무스(✠ 1536)의 사후에 파리의 출판업자 스테파누스(불어로는 ‘에스띠엔’)가 에라스무스 성서를 파리에서 세 판(1546; 1549; 1550), 제네바에서 한 판(1551)을 발행했다. 1546년 판과 1549년 판의 그리스어 본문은 에라스무스 성서와 다언어 성서를 혼합한 것이었다. 1550년 판은 본문비평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 스테파누스의 제3판(=1550년판)은 에라스무스 자신의 제4판(=1527년판)과 제5판(=1535년판)의 본문에 더 가까웠다. 스테파누스의 제3판은 본문비평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로 이 제3판은 본문비평장치가 첨부된 최초의 그리스어 신약성서라는 사실이다. 스테파누스는 제3판의 매쪽 여백 난에 14개 그리스어 사본들의 이문(異文, variant)들과 『다언어 성서』(Complutensian Polyglot)의 다른 읽기들(different readings)을 많이 수록해 놓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제3판은 특히 많은 영국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아서 영국에서 1880년까지 ‘표준 본문’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스테파누스의 제4판(=1551년판)은 신약성서 가운데서 최초로 본문의 구절에 오늘날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절(節) 번호가 기입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베자는 1565-1604년 사이에 제네바에서 그리스어 신약성서를 9번 발행했고 그의 사후에 또 한 번 발행되었다. 이 가운데서 네 판만(1565; 1582; 1588/89; 1604)이 본문 상으로 의존관계가 없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른 판의 축소판이었다. 베자는 5세기와 6세기에 각각 생겨난 대문자 사본인 05번 사본(Codex Bezae Cantabrigiensis)과 06번 사본(Codex Claromontanus)을 소유했던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베자가 자기의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본문을 편집하는 데 이 두 사본을 조금도 이용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던 에라스무스와 스테파누스의 그리스어 성서의 본문에서 유별나게 빛나가는 다른 하나의 성서를 발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베자가 발행한 성서의 본문은

스테파누스의 1551년 판 성서의 본문과 단지 조금밖에 다르지 않았다. 본문비평사적 관점에서 판단할 때 베자의 공과(功過)는 에라스무스가 기초를 놓은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본문이 하나의 표준 본문으로 굳어지게 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것이다. 만일 베자가 자기의 두 대문자 사본을 토대로 해서 그리스어 성서의 본문을 확 다르게 고쳤더라면 그 후로 300년 동안 본문비평가들이 이른바 텍스트스 레셉투스를 극복하기 위하여 애썼던 노력과 마침내 그것과 완전히 결별하는 용단을 내리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을 것이다. 이 평가는 에라스무스가 바젤 대학 도서관에서 자기가 원했더라면 이용할 수 있었던 E(08) 사본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에도 역시 적용된다. 베자의 1588/89년 판본과 1598년 판본은 1611년 판 영어 『흠정역 성서』(KJV)의 번역 대본으로 크게 이용되었다.

화란의 출판업자인 엘제비어(Elzevir) 형제는 1624년과 1633년 두 번에 걸쳐서 회중판(懷中判) 그리스어 신약성서를 출판했는데 그 본문은 1565년 판 베자 성서에서 거의 그대로 따온 것이었다. 엘제비어 형제가 출판한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제2판(1633년) 서문에 ‘텍스투스 레셉투스’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 출판업자는 자기들이 출판하는 이 그리스어 성서는 모든 사람이 공인/용인/수용하는 본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선전할 목적으로 이 어구를 사용했던 것이다(Textum ergo habes nunc ab omnibus receptum, in quo nihil immutatum aut corruptum damus = Therefore you have the text now received by all, in which we give nothing changed or corrupted = 그러므로 당신은(=독자는) 이제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본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변개되었거나 훼손된 것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출판업자가 광고 목적으로 사용한 텍스트스 레셉투스라는 표현은 그 때부터 ‘공인 본문’, ‘참된 본문’, ‘표준 본문’이라는 의미로 통용되었다. 엘제비어 형제의 그리스어 성서는 스테파누스의 그리스어 성서가 영국에서 공인 성서로 받아들여진 것과 같이 곧 유럽 대륙에서 공인 성서로 받아들여졌으며 1881년까지 중요한 개신교 성서번역의 대본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스테파누스가 1550년 파리에서 출판한 성서와 엘제비어 형제가 1633년 화란의 라이덴에서 출판한 성서가 각각 영국과 유럽 대륙에서 텍스트스 레셉투스로서 그 권위를 300여 년 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만한 무지와 맹신 때문이다. 그들은 성서 사본들의 유형을 알지 못하며 텍스트스 레셉투스를 구성하는 데 사용된 사본들의 본문이 모든 본문들 가운데서 가장 변개가 심한 이른바 비잔틴(Byzantine) 본문 유형에 속한다는 사실을 역지로 외면하려고 한다. 그리고 성서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믿은 17세기 경건주의자들의 신앙심은 이제 텍스트스 레셉투스에 들어 있는 자구(字句) 하나 하나에 이르기까지 영감된 것으로 믿는 데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텍스트스 레셉투스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곧 신성모독으로 여기고 변경의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했던 것이다.

본문비평사적 관점에서 볼 때에 1516년에서 1633년까지는 인쇄본 그리스어 신약성서가 출간되어서 그것이 텍스트스 레셉투스의 지위로 확립되어 갔던 시기로서 비평이전 시기(pre-critical period)에 속한다. 1633년 이후부터 약 300년 간은 이 텍스트스 레셉투스의 허망한 권위와 맞서 싸운 투쟁 시기에 속한다. 이 투쟁 시기는

- 1) 이문(異文) 축적 시기(1634-1720)
- 2) 본문비평 방법론의 확립과 대안 본문 모색 시기(1720-1880)
- 3) 여러 새 비평본의 경쟁 시기(1881-1950)
- 4) 하나의 표준본문으로 통합되는 시기(1950년 이후)로 나눌 수 있다.

2.1. 이문 축적 시기(1634-1970)

이 시기는 텍스트스 레셉투스의 낱말 또는 어구와 다른 읽기들을 단순히 수집하는 기간이었다. 월튼(Brian Walton)은 자기의 『다언어 성서』(1655-57)의 그리스어 본문이 적힌 각 쪽의 밑바닥에 02번 사본(Codex Alexandrinus)에서 뽑은 다른 읽기들(different readings)을 적어 놓았으며 첨부된 별권에 비평장치를 설치하고 다른 15개의 권위적 출처에서 뽑은 추가적 읽기들을 적어 놓았다. 02번 사본은 1627년에 알려졌는데 월튼은 A라는 기호를 붙였다. A 사본(=Codex Alexandrinus)은 이제 다른 읽기들을 수집하여 그것들을 텍스트스 레셉투스를 비평하는 저작에 제시하는 연구 활동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펠(John Fell)은 1675년 판 그의 신약성서에 100개 이상의 사본들과 고대 번역본들에서 뽑은 이문들을 제시했다. 밀(John Mill)이 그의 1707년 판 신약성서에 설치한 방대한 비평장치는 21,000 이문 항목에다가 무려 31,000 이상이나 되는 다른 읽기들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 이문들의 이와 같은 엄청난 수량은 단지 보기만 하더라도 텍스트스 레셉투스의 권위에 금이 가기에 충분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본문비평의 몇몇 중요한 원칙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마땅히 현대 신약성서 본문비평의 창시자라 일컬어질 수 있다.

2.2. 본문비평 방법론의 확립과 대안 본문 모색 시기(1720 -

1880)

이문들의 수집 활동은 많은 반대 주장에 부딪치기도 했으나 신약성서의 본문에 대한 증거를 찾으려는 운동은 꺾이지 아니했다. 이제부터는 더 나아가서 텍스트스 레셉투스를 대체할 본문을 수립하려는 계획이 노골화 되었다. 벤틀리(Richard Bentley)는 오리겐(Origen) 시대의 신약성서 본문을 재생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리스어/라틴어 신약성서의 『인쇄에 대한 제안』(1720)이라는 그의 글에서 그는 처음 5세기 간의 가장 오래된 대문자 사본들, 교부들의 증거, 고대 번역본들의 증거를 채용하여 그 시기의 신약성서 본문을 구축하겠다는 그의 의도를 표명했다. 불행하게도 그는 이 야심적인 계획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가 발표한 방법론적 원칙들이 미치는 영향은 중대했다. 이 원칙들에 입각하여 사람들은 텍스트스 레셉투스의 막강한 권위를 느리지만 착실하게 허물어오던 그 과정을 가속화시켰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수많은 읽기 가운데서 적절히 선택하여 새로운 비평적 본문(=‘비평적 본문’이란 비평작업을 통하여 수립한 본문이다)을 구성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읽기들 가운데서 바른 것을 선택하는 법칙(=rules 또는 canons라 함)을 개발했다. 이 법칙의 개발은 텍스트스 레셉투스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되었다. 벤틀리의 제안(1720)이 발표된 이후 10년 사이에 본문비평 역사를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작용한 작품이 둘 출간되었다. 그 하나는 벵엘(Johann Albrecht Bengel)이 1725년에 발표한 “선구자”(Prodromus)라는 글이고 다른 하나는 베트쉬타인(Johann Jakob Wettstein)이 1730년에 발간한 『서론』(Prolegomena)이라는 저서이다. 이 두 작품은 앞으로 그들이 각각 수행할 본문비평 작업의 법칙을 개진한 것이었다. 벵엘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비평본은 1734년에 출간되었고 베트쉬타인의 두 권으로 된 방대한 저서는 1751-52년에 나왔다.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의 연구 결과물은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되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크게 보아서 텍스트스 레셉투스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제안한 법칙들을 철저히 따르지 않았던 것이다. 이 두 사람의 공헌은 그들이 제시한 연구의 결과물에 있지 않고 그들이 제안한 연구의 법칙에 있다. 그들의 법칙은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더 어려운 읽기가 더 우수하다”(difficilior lectio potior)는 법칙은 벵엘이 제안한 유명한 법칙에 속한다. 그는 1742년에 27개 법칙을 제시했다. 베트쉬타인은 19개 법칙을 내놓았다.

벤틀리, 벵엘, 베트쉬타인이 제안한 원칙들이 실제 연구에서 결실을 거둔

것은 그리스바하(Johann Jakob Griesbach)에게 이르러서이다(1775-77). 그리스바하는 벵엘과 베트쉬타인의 법칙을 많이 포함해서 그 자신도 15개 법칙을 제시했다. 그리스바하가 그의 세 선행자와 다른 점은 그의 비평 원칙을 실천에 옮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비평사에 하나의 중대한 결과가 일어났다. 그것은 그리스바하의 비평본이 텍스투스 레셉투스와 최초로 중대한 결별을 이룬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오래 동안 존속해 온 텍스투스 레셉투스로부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떠나는 첫 걸음마일 따름이다. 왜냐하면 그의 비평본이 텍스투스 레셉투스와 많은 점에서 다르다 하더라도 텍스투스 레셉투스는 연구 작업을 시작할 본문의 토대로서 여전히 존재해 있었기 때문이다.

텍스투스 레셉투스와 선명한 결정적 결별이 이루어지는 데는 50여 년의 세월이 더 소요되어야 했다. 텍스투스 레셉투스와 깨끗이 결별한다는 것은 이제 신약성서의 본문을 이전의 인쇄본들로부터 구성하지 않고 전적으로 가장 오래된 증거들로부터 구성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일을 성취한 사람은 라흐만(Karl Lachmann)이다(1831). 그의 목표는 A.D. 400년 이전에 존재했던 그대로의 본문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그는 전통적인 본문을 완전히 제쳐 놓고 그 대신에 가장 오래된 대문자 사본들, 고대 라틴 번역들과 불가타, 그리고 오리젠, 이레네우스, 시프리아노와 같은 초기 교부들로부터 그 자신의 본문을 끌어내는 과감한 방법을 사용했다. 라흐만의 방법을 따라서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현대적 비평본을 만들어 내는 일과 새로운 사본들을 발견해내는 일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 두 가지 일에 탁월한 모범을 보인 사람은 티셴도르프(Constantine Tischendorf)였다. 그는 1841-72년 사이에 그리스어 신약성서를 여덟 판 발행했고 가장 중요한 사본의 하나인 시내 사본(Codex Sinaiticus)을 위시하여 많은 사본(대문자 사본 18개와 소문자 사본 6개)을 발견했으며 기타 36개 사본을 편집하여 자기가 발견한 것들과 함께 수십 권의 책으로 간행했다. 1869-72년에 제8판으로 발행된 그의 대형 판 신약성서 비평본은 크기가 크다는 것과 다른 읽기의 수가 막대하게 많다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 비평자료는 오늘날에도 유용하다. 이 비평본은 새로 발견된 자료들을 모두 이용했다는 점과 텍스투스 레셉투스에 대한 승리를 촉진시켰다는 점에서는 중요하지만 여기에 사용된 자료 이용 방법이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시대에 뒤진 것이기 때문에 이 비평본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트레겔레스(Samuel Prideaux Tregelles)는 1854년에 라흐만과 티셴도르프의 노선을 따라서 본문비평의 법칙을 만들어냈으며 1857년과 1872년 사이에 신약성서 비평본을 발행했다.

2.3. 여러 새 비평본의 경쟁 시기(1881-1950)

신약성서 본문비평사에 획을 긋는 중대한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웨스트코트(Brooke Foss Westcott)와 호르트(Fenton John Anthony Hort)가 20년 이상의 연구의 결과로 만들어 낸 신약성서 비평본이 마침내 1881-82년에 발행된 일이다. 그들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원래의 그리스어로 작성된 신약성서)이라는 그들의 바로 그 작품 제명(題名) 속에 잘 드러난다.

벤틀리와 라흐만이 각각 3세기와 4세기의 본문을 수립하기를 원했지만 이와 달리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원래의 본문(the original text) 그 자체를 재구성해 내려고 했다. 그들이 세운 이 대담한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들이 개발한 새로운 방법론이다. 그들은 본문을 네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특징을 밝혔다. 이 분류법에 의거하여 그들은 텍스투스 레셉투스가 시리아(Syria) 본문 유형(오늘날은 일반적으로 ‘비잔틴 본문 유형’이라고 더 흔히 불리어진다)의 본문에 대체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라흐만, 티센도르프, 트레겔레스 등등이 더 오래된 증거들의 논리적 권위를 주장함으로써 텍스투스 레셉투스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시리아 본문 유형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 후대의 본문이 더 오래된 본문 유형으로부터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부풀어나기 식으로 발전해 갔느냐 하는 계보학적 변화 과정을 일관성 있게 논증함으로써 텍스투스 레셉투스의 아성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렸다. 이 점에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20세기의 신약성서 본문비평학이 논의할 사안(事案)을 다룰 무대를 미리 마련해 준 셈이다. 1881-1950년은 수많은 비평본들이 경쟁적으로 발간되던 시기였다. 웨이머쓰(Richard Francis Weymouth)가 1886년에, 바이스(Bernhard Weiss)가 1894-1900년에, 영국 성서공회(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가 1904년에, 수터(Alexander Souter)가 1910년에(초판은 1910년, 개정판은 1947년), 포겔스(H. J. Vogels)가 네 판을 1920-50년에, 메르크(Augustinus Merk)가 아홉 판을 1933-64년에, 개정판을 1965년에, 보버(J.M. Bover)가 다섯 판을 1943-68년에, 네스틀레(Eberhard Nestle)가 열 두 판을 1898-1923년에, 그의 아들 네스틀레(Erwin Nestle)가 여덟 판을 1920-50년에 각각 발행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네스틀레의 비평본이다. 왜냐하면 이 비평본은 19세기 본문비평학의 대표적 세 열매인 티센도르프의

비평본과 웨스트코트/호르트의 비평과 웨이머쓰의 비평본(1901년부터는 웨이머쓰의 것 대신에 바이스의 비평본을 이용함)을 토대로 해서 출발하여 대를 이어가면서 개정을 거듭하여 마침내 20세기의 가장 완벽한 표준 본문(standard text)이라는 지위를 획득하는 데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 비평본은 본문만 우수할 뿐만 아니라 회중관임에도 불구하고 비평장치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거의 완벽하게 실려 있기 때문에 전문적 주석가들이 본문비평 작업을 수행하는 데 이용하는 작업용 판본으로서 아주 탁월하다. 네스틀레의 비평본은 제13판에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한 번 탈바꿈했다. 이 때에 풍부한 본문비평장치를 새로이 설치했으며 본문을 결정하는 데에 그 때까지 적용했던 기계적인 다수결 원칙에서 벗어나서 몇몇 구절을 우수한 증거 자료에 의거하여 새로이 결정했다. 1952년 제21판부터 알란트(Kurt Alland)가 공동발행인으로 가담하여 특히 비평장치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보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63년의 제25판은 또 한 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고 1979년의 제26판에 이르러서는 본문이 새로이 구성되고 새로운 비평자료가 첨가되고 활자체가 바뀌는 등등 환골탈태한 새 모습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하여 탄생된 네스틀레-알란트 비평본은 20세기의 신약성서의 표준본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얻게 되었다. 1904년에 영국 성서공회는 네스틀레 판본을 채택하여 그리스어 신약성서를 발행했다.

2.4. 하나의 표준본문으로 통합되는 시기(1950년 이후)

1950년 이후의 본문비평 작업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표준본문을 확립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시기에 네스틀레-알란트의 비평본이 하나의 표준본문으로 확정되어 가는 과정은 앞에서 이미 간략하게 진술했다. 이 시기에 하나의 표준본문을 확립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미국 성서공회를 비롯한 유럽 몇 나라의 성서공회이다. 미국 성서공회, 스코트랜드 성서공회, 독일 뷔르텐베르크 성서공회는 성서 번역에 특별히 적합한 그리스어 신약성서에 대한 증대하는 수요에 부응하는 하나의 비평본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1955년에 국제적으로 그리고 초교파적으로 구성된 본문비평 학자들의 위원회를 임명했다. 이 일에 화란 성서공회와 영국 성서공회도 나중에 가담했다. 이 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새 비평본의 특징을 다음 네 가지로 설정했다. 1) 비평장치는 번역자에게 의미상으로 중요하거나 본문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다른 읽기들에만 제한한다. 2) 본문으로 채택된 읽기의 확실성에 대한 상대적 정도를 표시해 주기로 한다. 3) 다른 읽기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제시한 증거는 그 내용을 완전한 형태로 인용한다. 4) 의미상의 변화를 일으킬 상이한 구두점(punctuations) 치기를 제시한다.

이 위원회는 그 작업을 다음 네 단계로 나누어 수행했다. 1) 본문의 확정 은 웨스트코트-호르트의 비평본을 토대로 해서 네스틀레, 보버, 메르크, 포겔스, 티웬도르프, 폰 조덴(von Soden)의 비평본을 서로 비교하여 결정했다. 2) 수 천 개 조(組)에 달하는 이문(異文, 다른 읽기)들에 대한 자료 수집은 기존의 인쇄본들과 주석서들과 전문 연구서들에서만 아니라 또한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파피루스 사본들, 대문자 사본들, 소문자 사본들, 성서 일과표들에서도 하였다. 3) 약 600여 개에 달하는 구두점상의 상이점은 여러 그리스어 인쇄본과 영어, 독일어, 불어의 주요 번역본들에서 선택했다. 4) 본문이 수립되고 채택된 읽기에 대해서 그 확실성의 정도를 A, B, C, D 네 등급으로 표시했다.

이 위원회가 설정한 편집 방침 두 가지를 든다면 1) 그리스어의 철자법은 바우어(Bauer) 사전 제5판의 철자법을 따르기로 한 것 2) 참조 구절 표시는 직접 인용, 확실한 인용(引喻, allusions), 문학적 또는 내용적 병행 구절에 국한하기로 한 것이다.

위의 여러 나라 성서공회가 연합하여 제작한 그리스어 신약성서가 *The Greek New Testament*라는 이름으로 초판이 출판된 것은 1966년이었다. 제2판은 1968년에 출판되었는데 초판과의 차이점은 본문에 몇몇 변화가 생겼다는 것과 채택된 본문의 확실성 등급 표시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등급 표시는 훨씬 더 상향 조절되었다.

본문비평사적으로 중대한 일이 일어난 것은 제3판의 출판과 관련해서이다. 알란트(Kurt Alland)는 네스틀레-알란트 비평본 (아래에서 NTG로 약칭함) 제26판의 제작에도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고 *The Greek New Testament* (GNT로 약칭함) 제작 위원회의 일원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 위원회는 GNT 제3판의 본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회사에 길이 남을 아주 중대한 결의를 하게 되었다. 그것은 NTG 제26판의 본문으로 알란트가 수립해 놓은 그 본문을 또한 GNT 제3판의 본문으로도 채택하기로 이 위원회가 결정한 일이다. 그 결과로 GNT 제3판의 본문은 그 이전 판과 비교하여 500여 곳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여 다행스럽게도 세계 기독교회는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두 대표적 그리스어 신약성서 비평본에 단일한 본문을 소유하게 되었다. GNT 제3판과 NTG 제26판이 발행된 연도는 각각 1975년과 1979년이다. 이 두 판에 딸린 비평장치가 현저하게 수정·보완되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NTG와 GNT는 1993년에 각각

제27판과 제4판을 출판했으나 본문 자체에는 변화가 없고 다만 비평장치에만 변화가 생겼을 따름이다. GNT 제4판의 비평장치에는 의미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다른 읽기의 단위들이 많이 삭제된 반면에 본문의 전승 역사를 이해하거나 주석을 하는 데 중요성을 지닌 다른 읽기의 단위들은 많이 첨가되었다.

GNT와 NTG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공통점은 이 둘이 세계의 거의 모든 성서공회뿐만 아니라 가톨릭교회 측에서도 공인하는 가장 권위 있는 표준적인 비평본이라는 사실과 이 둘이 공통적인 단일한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차이점은 이 둘이 각각 그 용도와 목적을 다르게 하여 제작되었다는 사실과 그에 따라 편집 체제가 다르게 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GNT는 성서 번역자들이 번역의 대본으로 사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제작되었고 NTG는 주석가들과 신학자들이 전문적으로 성서를 연구하는 데 적합하도록 제작되었다. 그래서 NTG의 비평장치에는 본문비평에 필요한 모든 다른 읽기와 그에 대한 증거들이 복잡한 기호들을 사용하여 압축적으로 거의 빠짐 없이 제시되어 있지만 GNT에는 다른 읽기가 제시되는 항목 수가 훨씬 적다.

편집 기술상의 차이점으로는 1) 철자법이 다른 것이 있다는 것. 2) 구두점 표시가 다른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 3) 문단 나누기가 다른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 4) 구약성서 인용문을 표시하는 활자체가 서로 다르다는 것. 5) GNT에는 큰 문단 단위마다 소제목이 붙어 있다는 것이다.

3. GNT 제4판의 비평장치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본문비평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문비평에 이용되는 자료가 어떤 것인지를 개관하는 것과 각개의 자료를 지칭하는 기호가 어떤 것인지를 익히는 것이 첫 단계의 필수 요건이다.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본문은 수많은 여러 필사본(또는 ‘수사본’[手寫本] 또는 그냥 ‘사본’이라고도 함)에 다양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 또 고대 교회에서 사용하던 성서일과표 속에도 많이 보존되어 있으며 초대 교부들의 글 속에도 더러 보존되어 있다. 또 4-5세기 이전에 신약성서를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한 번역본들은 그것들의 대본으로 사용된 본문이 어떠한지를 유추할 수 있게 하는 열쇠가 된다.

3.1. 증거 사본을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방법

그리스어 사본들은 그 외관을 기준으로 하여 세 부류로 분류된다. 첫째는 파피루스 종이에 기록된 사본이요 둘째는 대문자로 기록된 대문자 사본(uncials 또는 majuscules)이요 셋째는 필기체인 소문자로 소문자 사본(minuscules 또는 cursive manuscripts)이다. 파피루스 사본은 papyrus를 뜻하는 첫 글자 **p**의 오른쪽 어깨에 아라비아 숫자를 붙여 지칭한다. GNT⁴에 제시된 97개 파피루스 사본은 각각 p¹, p², p³...p⁹⁵, p⁹⁶, p⁹⁷로 표시되었다. 대문자 사본을 지칭하는 데는 그 일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중복적으로 사용된다. 그 한 가지 방법은 히브리어 문자 첫 글자 **א**, 로마 문자 알파벳 대문자 26개(A에서 Z까지), 그리스어 알파벳 대문자 10개(로마 알파벳 대문자와 모양이 겹치지 않는 것은 Γ, Δ, Θ, Λ, Ε, Η, Σ, Φ, Ψ, Ω뿐이다)를 사용하는 것이요 다른 한 가지 방법은 0 + 아라비아 숫자로, 즉 01, 02, 03,...0298, 0299, 0300 따위로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א**와 01, A와 02, B와 03,...Φ와 043, Ψ와 043, Ω와 045는 동일한 대문자 사본을 지칭하는 두 가지 기호이다. **א**에서 Ω까지를 글자 표시 대문자 사본(lettered uncials), 046에서 0300까지를 숫자 표시 대문자 사본(numbered uncials)라 부르기도 한다. 소문자 사본은 (0을 붙이지 않고) 1, 2, 3, 4, 5,...2784, 2785 따위로 지칭한다.

성서일과표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 한 가지는 예배일의 예배 의식에서 봉독할 성경 구절을 모아 놓은 것이요 다른 한 가지는 교인들이 매일 매일 읽을 성경 구절을 모아 놓은 것이다. 성서일과표를 지칭하는 방법은 lectionary(=성서일과표)의 첫 글자 1의 소문자를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번호를 붙여 지칭한다. 즉 *l1*, *l2*,...*l1780*, *l1977* 따위로 표시한다(GNT에는 증거 자료로 이용되는 것들만 실어 놓았다).

교부들의 글은 교부들의 이름을 사용하여 지칭한다. 교부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한 교부들과 라틴어를 사용한 교부들로 분류된다.

고대 번역본의 사본은 라틴어, 시리아어, 콥트어, 아르메니아어, 게오르기아어, 에티오피아어, 슬라브어로 번역된 번역본의 사본이다. 라틴어 번역본의 사본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그 한 부류는 고대 라틴어 번역본의 사본이고 다른 한 부류는 불가타 번역본의 사본이다. 전자는 라틴 알파벳 소문자와 그리스어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즉 a, a², ar, aur, b, β, c, com, d, dem, div, e, f, ff, ff¹, ff², g,...v, w, z 따위이다(GNT⁴, 24*~26*쪽 참조할 것). 불가타(Vulgata 또는 영어로 Vulgate)는 5세기에 제롬(Jerome)이 번역한 번역본이다. 이것은 vg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표시하며 불가타 사본의 특수한 인쇄본을 지칭할 때에는 vg에다가 어깨 글자를 붙여

서 지칭한다. 즉 vg^{cl} 은 1592년에 클레멘타인이 간행한 인쇄본(Clementine Vulgate)을, vg^{ww} 는 워즈워쓰와 화이트가 간행한 인쇄본(Wordsworth/White Vulgate)을, vg^{st} 는 슈투트가르트에서 간행된 인쇄본(Stuttgart Vulgate)를 지칭한다.

고대 시리아어 번역본은 총체적으로 syr라는 기호를 사용하여 표기하며 개개의 사본은 어깨 글자를 붙여서 지칭한다. 즉 syr^s 는 시내 반도에서 발견된 사본(Sinaitic Syriac)을 지칭하며 syr^c 는 쿠레톤(W. Cureton)이 발견한 사본(Curetonian Syriac)을 지칭한다. 5세기 전반에 시리아 교회에서 공적으로 널리 사용되던 번역본을 ‘페쉬타’(Peshitta)라 일컫는데 시리아어로 ‘페쉬타’는 ‘단순한/간단한’(=simple)이라는 의미이다. 즉 이 번역본은 난외(欄外) 주를 붙이지 않은 간단한 번역임을 뜻한다. 이 번역본은 syr^p 로 표기한다. syr^{ph} 는 필로케누스(Philoxenus von Mabbug) 주교의 위탁을 받아 폴리카프(Polycarp)이 번역한 번역본을 지칭한다. 그리고 syr^h 는 616년에 수도승 하르켈(Thomas von Harqel)이 개정한 시리아어 번역본을 가리키며 $syr^{h\text{ with }*}$ 는 하르켈 번역본의 본문 안에 *표가 붙은 곳을 가리키며 이 표가 붙은 곳에는 다른 읽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syr^{hmg} 는 하르켈 번역본의 난외에 기록되어 있는 읽기를 가리킨다. syr^{hr} 는 하르켈 번역본의 난외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어 읽기를 가리킨다. syr^{pal} 은 ‘에스트란젤로’(Estrangelo)라는 팔레스타인-시리아어 문서 속에 들어 있는 아람어 방언을 가리킨다.

타티안(Tatian, ca. A.D. 120-170)은 시리아 사람으로 순교자 저스틴(Justin)의 제자였다. 그는 네 복음서를 조화롭게 통합하여 하나의 복음서를 만들었다. 이 책을 『디아테사론』(Diatessaron)이라 하는데 ‘네 복음서를 통합한 복음서’라는 뜻이다. 우리말로 간단하게 『통합 복음서』라고 명명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많은 신약개론서에서 이것을 『네 복음서 대조성경』이라고 명명한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디아테사론』 자체는 소실되어 없어졌고 다만 시리아의 교부 에브라임(Ephraem)의 주석서 속에 부분적으로 인용되어 있거나 아르메니아어(Armenian)로 번역된 번역본으로 남아 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Diatessaron이라는 기호는 에브라임의 주석서 속에 시리아어로 인용된 내용과 아르메니아어 번역본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Diatessaron^{syr}는 에브라임의 주석서 속에 시리아어 원어로 인용된 것을 표시하는데 이것은 아르메니아어 번역본의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Diatessaron^{armr}는 아르메니아어 번역본의 인용이 에브라임의 주석서에 보존되어 있는 시리아어 원문과 다르다는 것을 표시한다.

콥트어 번역의 사본은 cop으로 표기한다. cop^{sa}는 사하드(Sahad) 방언으로, cop^{bo}는 보하이르(Bohair) 방언으로, cop^{pb}는 원시 보하이르(Proto-Bohair) 방언으로, cop^{meg}는 중부 이집트어로, cop^{mf}는 중부 이집트어 파이움(Fayyum) 방언으로, cop^{fach}는 아크뮴(Achmim) 방언으로, cop^{fach2}는 하위 아크뮴 방언으로 번역된 사본을 가리키며 cop^{fay}는 잡다한 파이움 번역 사본의 파편들을 가리킨다.

아르메니아어(Armenian)로 번역된 사본은 arm라 표기한다. 게오르기아어(Georgian)로 번역된 사본은 geo로 표기한다. geo¹과 geo²는 게오르기아어 번역에 나타나 있는 두 전승을 가리키며 geo^{A,B}는 geo²의 기초를 형성하는 사본들을 가리킨다.

에티오피아어(Ethiopic)로 번역된 사본은 eth로 표기한다. eth^{ro}는 1548-49년에 로마에서 간행한 인쇄본을 가리키며 eth^{po}는 eth^{ro}에 기초하여 펠 플라트(Pell Platt)가 간행한 인쇄본을, ethth는 타클라 하야마노(Takla Haymanot) 간행한 인쇄본을, eth^{ms}는 에티오피아어 사본을 가리킨다. 고대 슬라브어 번역은 slav라 표기한다.

교부들의 글을 증거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의 이름을 그대로 적는다. 예를 들면 Irenaeus, Justin, Origen 등등으로 표시한다. 그런데 어떤 교부의 글이 다른 어떤 교부의 글 속에 인용된 형태로 나타나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인용된 교부의 이름 오른쪽 어깨에 인용한 교부의 이름을 ‘according to 아무개’로 덧붙여서 표현한다. 예를 들면 Arius^{acc. to Epiphanius}는 Arius의 글이 Epiphanius의 글 속에 인용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 표시 방법에 예외가 있다. 그것은 영지주의자 Theodotus의 글이 어떤 교부의 글 속에 인용되어 있는 경우이다. Theodotus의 글이 Clement의 글 속에 인용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Clement^{from Theodotus}로 표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특별하게 표시하는 이유는 Theodotus의 원래의 글과 Clement의 편집적 가필(加筆) 사이를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Marcion^{acc. to Tertullian}은 Marcion의 글이 Tertullian 글 속에 인용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지만 그냥 Marcion이라고 적은 기호는 하르낙(Harnack)이 편집한 인쇄본 속에 들어있는 Marcion의 글이라는 것을 뜻한다.

3.2. 같은 유형의 증거 사본을 집단적으로 지칭하는 방법

어떤 사본을 증거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본의 질(質)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사본의 본문은 생산 시기, 생산 지역, 유포 지역 등등에 따라 그 성격이 각각 다르다. 사본은 어떤 종류의 본문을 대변하느냐에 따라서 대체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1)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본문 2) 서방 본문 3) 가이사라(Caesarea) 본문 4) 비잔틴(Byzantine) 본문. (이 네 유형의 특징에 대해서는 Bruce M. Metzger,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pp. xvii-xx을 참조하라.) 이 가운데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비잔틴 본문이다. 소문자 사본의 거의 대다수는 비잔틴 본문 유형으로 분류된다. 비잔틴계 사본은 일명 코이네(Koine)계 사본, 또는 시리아(Syria)계 사본이라고도 한다. 비잔틴계 사본은 수적으로 모든 사본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비잔틴계 사본으로 분류되는 사본의 본문은 첨가, 확대, 융합(Conflation), 내용이 거칠거나 교리에 어긋나는 것을 부드럽게 다듬거나 삭제하기, 다른 병행구절과의 조화, 구약인용 본문과의 조화, 문법적 또는 문장론적 개선 등등으로 말미암아 가장 많이 훼손되었다. GNT는 이 비잔틴 본문을 대변하는 증거들을 제시하는 경우에 *Byz*라는 기호를 사용하여 집단적으로 표시한다. *Byz^{pt}*는 비잔틴계 사본의 일부를 가리킨다. 비잔틴계 사본을 증거로 제시하고 그 사본의 대표적 실례를 열거하는 경우에는 *Byz* 다음에 []를 치고 그 괄호 안에 해당 사본들의 기호를 기입한다. 예를 들면 *Byz* [E F G H]로 표기한다.

성서일과표를 집단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Lect*라는 기호를 사용한다. 이 기호는 대다수의 성서일과표와 희랍교회의 성서일과표(희랍교회의 성서일과표는 희랍교회의 인쇄본 성서 *Apostoliki Diakonia*에 들어 있는 성서일과표 본문을 가리킨다)를 함께 지칭한다. *Lect^{pt}*는 성서일과표에 담긴 본문 전승의 일부분(적어도 열 개 사본 이상)이 나머지와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Lect^{ptAD}*는 성서일과표에 담긴 본문 전승의 일부분(=*Lect^{pt}*)이 희랍 교회의 신약성서인 *Apostoliki Diakonia*의 성서일과표 본문과 일치한다는 것을 뜻한다.

고대 라틴어 번역본을 집단적으로 지칭하는 경우에는 *it*(=the Itala=the Old Latin)라는 기호를 사용한다.

몇몇 소문자 사본들은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서 지칭한다. *f¹*은 1, 118, 131, 209, 1582번 사본과 기타 몇몇 사본을 가리킨다. *f³*은 13, 69, 124, 174, 230, 346, 543, 788, 826, 828, 938, 1709번 사본과 기타 몇몇 사본을 가리킨다.

3.3. 개별 증거에 덧붙이는 추가 정보

어깨에 붙인 *표(예를 들면 A*, B* 따위)는 그 사본의 그 곳이 후대 사람의 손으로 수정되지 않은 그 사본의 본래 모습 그대로의 읽기를 뜻한다. A^c 또는 B^c는 후대 사람의 손으로 수정되어 있는 읽기를 뜻한다. 어떤 곳이 여러 번에 걸쳐서 수정되었을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붙여서 몇 번째 수정된 것인지를 표시한다. 즉 N¹, N², N³, N³, N⁴ 따위로 표현한다.

증거 사본을 ()로 묶은 것은, 예를 들면 (N), (A), (B) 따위는, 그 사본들은 각각 제시된 읽기를 증거하기는 하지만 세부 사항에서 약간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어깨에 붙인 ^{vid}라는 기호는 (예를 들면 A^{vid}) 그 사본의 보존 상태가 도저히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서 바로 그 곳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다만 짐작해서 그렇게 읽었다는 것을 뜻한다. 교부들에게 붙인 ^{vid}기호는 문체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으로 보아서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제시된 읽기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뜻한다.

어깨에 붙인 ^{mg}라는 기호는 그 사본의 난외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것을 뜻한다(mg는 marginalml 약자이다).

어깨에 붙인 ^{v.t.}이라는 기호는 ‘다른 읽기’(=variant reading)를 뜻하는 약자인데 어떤 사본에 하나의 대안적 읽기로 특별히 지정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어깨에 붙인 ^{supp}는 그 사본의 손실된 부분이 후대 사람의 손으로 채워 넣어졌다는 것을 뜻한다(supp는 supplied의 약자이다).

[sic]는 그러한 형태로 재생했다는 것을 뜻한다(sic는 thus를 뜻하는 라틴 말이다).

?는 어떤 번역본에서 그리스어로 역번역한 것이 옳은지 완전하게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교부들의 글을 인용할 때에 어깨에 붙인 ^{txt}와 ^{lem}과 ^{comm}이라는 기호(예를 들면 Origen^{txt}, Origen^{lem}, Origen^{comm} 따위)는 교부들의 성서 주석서를 증거로 제시하는 경우에 ^{txt}와 ^{lem}은 그들이 주석하려고 인용해 놓은 성서 본문이 제시하는 읽기를 지칭하고 ^{comm}은 그들의 해설 내용에 근거해서 구축해낸 읽기를 뜻한다. ^{supp}는 어떤 교부의 주석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서 본문 중에 누락된 부분을 후대 사람이 채워 넣어서 읽는 곳을 가리킨다. ^{ms}, ^{mss}는 교부의 필사본이 인쇄본과 글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1/2}, ^{2/3}, ^{5/7} 따위는 어떤 구절이 어떤 교부의 글에 나타나는 회수와 그것이 어떤 읽기를 지지하는 회수를 나타낸다. 즉 분모는 어떤 구절이 나타나는 회수를, 분자는 어떤 읽기를 지지하는 회수를 표시한다. ^{pap}은 어떤 교부의 글이 그 인쇄본과 달

리 파피루스 단계의 전승에서 내려온 읽기를 지지한다는 것을 뜻한다. ^{aa}는 어떤 교부의 인쇄본에서 나온 읽기를 지시한다. ^{ab}은 어떤 희랍 교부의 작품의 한 조각에서 인용한 것이 어떤 번역에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ab}은 어떤 교부의 작품에서 인용한 것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것을 뜻한다.

3.4. 기타 몇 가지 기호와 약어들

{A}, {B}, {C}, {D}는 어떤 읽기가 GNT의 본문의 읽기로 결정되는 확실성의 정도를 네 등급으로 표시한 것이다. 즉

A는 그 읽기가 확실하다는 것을 표시한다.

B는 그 읽기가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표시한다.

C는 위원회가 어느 읽기를 본문에 채택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표시한다.

D는 위원회가 결정에 도달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표시한다.

각 사본에 담겨 있는 내용이 신약성서 전체인지 그 가운데 어느 일정한 부분인지를 표시하기 위하여 e, a, p, c, r이라는 기호를 사용한다. 즉

e는 복음서를, a는 사도행전과 공동서신을, p는 바울서신(=바울의 13개 서신 + 히브리서)을, c는 공동서신을, r은 요한계시록을 뜻한다.

GNT의 본문에 [] 안에 묶인 부분은 본문에 넣어야 한다는 증거와 비평장치에 넣어야 한다는 증거가 본문비평상으로 똑 같은 비중을 지니고 있으므로 어느 쪽으로 결정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을 표시한다.

GNT의 본문에 [[]] 안에 묶인 부분은 본문비평상으로는 확실히 비평장치에 실어야 하는 것이 확실하지만 교회에서 성서의 본문으로 오래 동안 사용되어 온 관례를 감안해서 본문 속에 넣었다는 것을 표시한다.

MT는 구약성서 ‘마소라 본문’(Masoretic Text)이 그리스어 본문과 다른 경우를 표시한다.

LXX는 『70인역 그리스어 구약성서』(Septuagint)가 히브리 성서와 다른 경우를 표시한다.

Theodotion은 A.D. 2세기에 세오도티온이 번역한 구약성서의 그리스어 번역본의 본문을 지칭한다.

TR은 *Textus Receptus*(Oxford, 1889)를 지칭한다.

WH는 Westcott and Hort,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1881)을 지칭한다.

NA는 Nestle/Aland, *Novum Testamentum Graece*²⁶(7th revised printing, 1983)을 지칭한다.

M은 Merk, *Novum Teatamentum Graece et Latine* (1984¹⁰)를 지칭한다.

AD는 *Apostoliki Diakonia*(=Antoniadis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1988)를 지칭한다.

Lu는 *Die Bibel nach der Übersetzung Martin Luthers* (revidierter Text, 1984)를 지칭한다.

NIV는 *New International Version* (1983²)을 지칭한다.

NJB는 *New Jerusalem Bible* (1985)을 지칭한다.

RSV는 *Revised Standard Version* (1971²)을 지칭한다.

NRSV는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1990)을 지칭한다.

REB는 *Revised English Bible* (1989)을 지칭한다.

Seg는 *La Nouvelle Version Second Révisée* (Bible à la Colombe, 1978)을 지칭한다.

TEV는 *Today's English Version* (1976⁴)을 지칭한다.

TOB은 *Traduction Oecumenique de la Bible* (1988²)을 지칭한다.

VP는 *La Biblia: Versión Popular* (1983²)를 지칭한다.

3.5. 문단 및 단원 나누기 부호

그리스어 사본에는 오늘날 글을 쓰는 데 사용하는 구두점(punctuations)이 사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낱말과 낱말을 다 붙여 썼기 때문에 문장이 어디서 끝나는지 결정하기 애매한 경우도 있고 그 문장이 의문문인지, 명령문인지, 평서문인지 분간하기 애매한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므로 그리스어 본문에 적절한 구두점을 기입하는 것도 본문비평 작업의 주요한 과제에 속한다. 그 뿐만 아니라 글의 의미는 문장을 단순히 나열해 놓음으로써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큰 단위인 문단과 단원과 대단원 따위로 나눔으로써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GNT⁴는 이전 판들과는 달리 글을 몇 단계의 부분으로 분할하는 장치를 새로이 도입했다. 즉 그것은 하위 문단(subparagraph), 문단(paragraph), 단원(section), 대단원(major section)으로 나누는 방법이다. 여기서 대단원이 가장 큰 의미 단위이고 하위문단이 가장 작은 의미 단위이다. GNT⁴는 이러한 나누기를 단순히 표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중요한 그리스어 신약성서 비평본들과 현대 영어, 독일어,

불어의 주요한 번역본들이 그 자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처리해 놓았다. 이것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호가 사용된다.

*P*라는 글자는 지시된 자리에서 문단(paragraph)이 나뉜다는 것을 표시한다.

*NO P*라는 글자는 지시한 자리에서 문단이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한다.

*SP*라는 글자는 인용한 그리스어 비평본과 현대 번역본에서는 지시된 자리에서 하위 문단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

*S*는 지시한 자리에 단원 제목(section heading)이 붙여져 있거나 단원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표시한다.

*NO S*는 인용한 비평본들과 번역본들은 GNT⁴ 본문이 하는 대로 본문을 새 단원으로 분할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한다.

*MS*는 지시한 자리에 대 단원 제목(a major section heading)이 붙여져 있거나 대단원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표시한다. 예를 들면 몇몇 번역본에서는 로마서 8장 끝과 11장 끝에 이러한 대단원 나누기가 되어 있다.

*C*는 인용한 비평본들과 번역본들에서는 어구 또는 낱말 사이에 단절(=구 나누기)이 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

*NO C*는 인용한 비평본들과 번역본에서는 어구 또는 낱말 사이에 단절(=구 나누기)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4. 본문비평은 어떻게 하는가?

그리스어 원어로 쓰여 있는 사본만 하더라도 그 수가 5,500개가 훨씬 넘는다. 여기에 고대 번역본의 사본까지 합치면 그 수는 몇 배나 늘어난다. 이 그리스어 사본끼리 서로 비교해 볼 때에 그 가운데서 본문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단 두 개도 없다. 신약성서의 본문 전체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 곳, 즉 본문비평적 용어로 표현하면 서로 다른 읽기를 증거하는 곳은 30,000이 넘는다. 본문비평이라는 것은 사본들 사이에 서로 다른 두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읽기가 제시되는 곳에 어느 읽기가 원래의 본문(原本文)에 속하는 것인지 (더 검혀하게 표현해서: 원래의 본문에 가장 가까운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작업이다. 이 일은 단순히 성서의 어느 곳에 어떤 사본들이 각각 무슨 다른 읽기를 증거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만 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본문비평학적 결정은 증거 자료의 수(數)를 단순히 세어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 자료의 질(質)을

달아보고 판정해야만 된다. 예를 들면 어느 곳에 Χριστος Ιησους라는 읽기를 제시하는 사본의 수가 4,990개이고 Ιησους를 증거하는 사본의 수가 10개 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10개 사본이 제시하는 본문의 질이 질적으로 훌륭한 것이고 나머지 모든 사본들이 제시하는 본문의 질이 나쁜 것이라면, 그 10개의 사본이 증거하는 읽기를 본문으로 채택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문비평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사본의 질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 뿐만 아니라 질이 같은 사본끼리 서로 다른 읽기를 증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정해야 하느냐 하는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경우에 주먹구구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법칙에 의거하여 판정해야 한다. 사본의 질은 외관으로 판별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본의 질을 다섯 등급으로 분류한다면 같은 파피루스 사본이라 하더라도 다섯 가지 등급으로 각각 분류된다. 대문자 사본 가운데서도 5등급에 속하는 것이 있으며 소문자 사본 가운데서도 1등급에 속하는 것이 있다. 사본의 질은 어떻게 정하는가? 가장 기본적인 분류 방법은 사본의 생산 시기와 유포 지역, 사본 본문의 문체적 특성과 신학적 경향성 등등을 근거로 사본 본문의 성격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것이다. GNT 편집 위원회가 채택한 분류 방법은 다음과 같다(Bruce M. Metzger,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UBS, 1975, pp. 3*-11*, 15*-16*).

4.1. 알렉산드리아 본문(Alexandrian Text)

알렉산드리아 본문은 원래의 본문(原本文)을 보존하는 데 가장 충실하며 따라서 가장 좋은 본문이라 할 수 있다. 웨스트코트(Westcott)와 호르트(Hort)는 이것을 중립적 본문(neutral text)라 일컬었다. 알렉산드리아 본문의 특징은 간결성(brevity)과 엄밀성(austerity)이다. 일반적으로 이 본문은 다른 형태의 본문보다 더 짧다. 이 본문에는 문법적으로 다듬거나 문체적으로 다듬은 흔적이 없다(이러한 흔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본문은 맨 마지막에 말할 비잔틴 본문이다). 이 본문을 증거하는 주요한 사본은 바티칸 사본(B)과 시네 사본(Σ)과 4세기 중반에서부터 생긴 양피지 사본들이다. 그 뿐만 아니라 보드머 파피루스(Bodmer Papyri)를 발견함으로써 약 2세기 말과 3세기 초에 필사된 p⁶⁶과 p⁷⁵ 파피루스 사본도 알렉산드리아 본문을 제시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본문 유형은 일찍이 2세기에 유포되었던 한 원형(archetype)에까지 소급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히드어(Sahidic) 번역본들과 보하이르어(Bohairic) 번역본들도 전형적으로 알렉

산드리아 본문 유형의 읽기들을 포함하고 있다.

4.2. 서방 본문(Western text)

이 본문도 역시 시기적으로는 2세기에까지 소급될 수 있다. 이 본문은 이탈리아(Italy)와 골(Gaul), 그리고 또한 북 아프리카 지역에 널리 유통되었다. 이 밖에 이집트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도 유통되었을 것이다. 약 A.D. 300년에 생산된 p³⁸과 약 3세기 말에 생산된 p⁴⁸이 이집트에서 발견된 것은 서방계 본문이 이 지역에도 유포되었다는 것을 증거한다. 마르시온(Marcion), 타티안(Tatian), 이레네우스(Irenaeus), 테르툴리안(Tertulian), 키프리안(Cyprian) 등의 교부들도 이 본문을 사용했다. 이 유형의 본문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사본은 5세기의 베자 사본(Dea=05: codex Bezae Cantabrigiensis)과 세기의 클라로몽 사본(Dp=06: codex Claromontanus)과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장 30절까지의 읽기에 대해서는 5세기의 워싱턴 사본(W: codex Washintonianus)이다. 또한 고대 라틴어 번역본들도 서방 본문을 제시하는 중요한 증거들이다.

서방 본문의 주요한 특징은 설명어 덧붙이기(paraphrase)가 많다는 것이다. 낱말들, 어구들, 심지어는 문장 전체도 자유롭게 바뀌지거나 생략되거나 삽입되었다. 이렇게 변경한 동기는 병행 구절들 사이에 조화를 이루려는 것이며 때로는 전래적 또는 외전적(apocryphal) 자료를 삽입함으로써 이야기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특별한 동기를 찾아 볼 수 없는 아주 사소한 변경들도 많이 있다. 서방 본문의 사도행전은 원래의 본문으로 여겨지는 것보다 10% 가량이나 더 길다. 서방 본문에서 가장 해명하기 어려운 수수께끼는 누가복음 끝부분과 사도행전에서는 서방 본문이 그 일반적 특성과 정반대로 다른 유형의 본문들과 비교해서 오히려 낱말과 어구들이 생략되었다는 사실이다.

4.3. 가이사라 본문(Caesarean text)

이 본문은 Θ , 565, 700과 같은 사본들과 아르메니아어(Armenian) 번역본들과 게오르기아어(Georgian) 번역본들 안에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다. 이 본문의 특성은 서방 본문의 읽기와 알렉산드리아 본문의 읽기를 혼합했다는 데 있다. 최근에는 이 가이사라 본문 유형의 존재를 부정하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본문 유형은 안디옥에서와 안디옥 근처에서 유포되었는데 고대 시리아어 번역본들 속에 보존되어 있다. 즉 복음서 번역본인 Syr^a와

Syr^c의 두 사본과 아프라테스(Aphraates)와 에브라임(Ephraem)의 저작 속에 들어 있는 성서 인용문들 안에 주로 보존되어 있다.

4.4. 비잔틴 본문(Byzantine text)

이 본문의 명칭은 다양하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시리아 본문(the Syrian text), 폰 조덴(von Soden)은 코이네 본문(Koine text), 레이크(Lake)는 교회적 본문(ecclesiastical text), 로우프스(Ropes)는 아디옥 본문(Antiochian text)이라고 일컫는다. 전체적으로 볼 때 비잔틴 본문은 신약 성서의 여러 가지 분별 유형들 가운데서 최후에 생긴 유형이다. 이 본문의 특성은 명백성(lucidity)과 완전성(completeness)이다. 이 본문은 거친 표현을 매끄럽게 다듬었고 둘 또는 그 이상의 다양한 읽기들을 합성시켜서 하나의 팽창된 읽기로 만들었으며(이른바 conflation) 다양한 병행 구절들을 조화롭게 만들었다(이른바 harmonizing). 이런 식으로 합성된 본문은 아마도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생산되었을 터인데 나중에 콘스탄티노플(Costantinople)로 전해져서 비잔틴 제국(Byzantine Empire) 방방곡곡에 널리 유포되었다. 이 본문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은 복음서 부분에서 알렉산드리아 사본(A=01: codex Alexandrinus. 이것은 하나의 사본 이름이다. 사본의 본문 유형을 지칭하는 Alexandrian text와 혼돈하면 안된다), 후대의 대문자 사본들, 그리고 거대한 수량의 소문자 사본들 안에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 좀 더 오래된 본문 형태를 우연히 보존한 사본이 이따금 있었다는 예외 사항은 있지만, 6세기 세기 또는 7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활판 인쇄술이 발명될 때까지 (A.D. 1450-56) 전 기간 동안에 이 비잔틴 본문 유형이 일반적으로 권위적인 본문으로 간주되었으며 가장 널리 유통되고 수용되던 본문이었다.

본문비평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에라스무스가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인쇄본을 처음으로 편집할 때에 사용한 사본이 모두 12세기 이후에 필사된 것으로 이 비잔틴 본문을 담고 있는 사본들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베자는 5세기와 6세기에 각각 필사된 두 개의 대문자 사본, 즉 베자 사본(=05: codex Bezae Cantabrigiensis)과 클라로로몽 사본(=06; codex Claromontanus)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본의 읽기가 일찍이 에라스무스가 구축해 놓은 본문에서 빛나가는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두 사본의 읽기에 근거하여 에라스무스의 본문을 수정하려는 시도를 감행할 수 없었다. 그는 다만 자기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인쇄본의 난외에 이 두 대문자 사본의 읽기를 다른 읽기의 본보기로 조금 제시해 놓았을 뿐이다. 이렇

게 하여 베자는 에라스무스가 구축한 그리스어 신약성서 본문이 곧 텍스트우스 레셉투스로 확정되게 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위에서 제시한 본문 유형을 증거하는 대표적 사본들이 어떤 것인지를 도표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Bruce M. Metzger, *op. cit.*, pp. 15*-16*).

알렉산드리아 본문 증거들(Alexandrian Witnesses)

(1) 일차적(primary) 증거들:

p⁴⁵(사도행전에서), p⁴⁶, p⁶⁶, p⁷⁵, **Ⲛ**, B, 사히드어 번역본들(부분적으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겐(부분적으로), 바울의 글을 담고 있는 대다수의 파피루스 단편들.

(2) 이차적(secondary) 증거들:

복음서들에 대하여: (C), L, T, W(누가복음에서는 1:1에서 8:12까지와 요한복음), (X), Z, Δ(마가복음에서), ⲉ, Ψ(마가복음에서; 부분적으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33, 579, 892, 1241, 보하이르 번역본들.

*()를 친 사본은 여러 유형이 혼재되어 있음을 뜻한다.

사도행전에 대하여: p⁵⁰, A, (C), Ψ, 33(11:26-28:32), 81, 104, 326.

바울서신에서: A, (C), H, I, Ψ, 33, 81, 104, 326, 1739.

공동서신에서: p²⁰, p²³, A, (C), Ψ, 33, 81, 104, 326, 1739.

계시록에서: A, (C), 1006, 1611, 1854, 2053, 2344;

좀 덜 좋은 것으로 p⁴⁷, **Ⲛ**.

서방 본문 증거들(Western Witnesses)

복음서에 대하여: p⁶⁹, **Ⲛ**(요한복음 1:1-8:38에서), D, W(마가복음 1:1-5:30에서), 0171, 고대 라틴어 번역들, (부분적으로 syr^s와 syr^c), 초기 라틴 교부들.

사도행전에 대하여: p²⁹, p³⁸, p⁴⁸, D, E, E, 383, 614, 1739, syr^{hmg}, syr^{palms}, cop^{G67}, 초기 라틴 교부들, 에브라임.

서신들에 대하여: 그리스어-라틴어 이중어 사본들인 D, F, G; 3세기 말까지의 그리스 교부들, 고대 라틴어 사본들과 초기 라틴 교부들.

계시록에 대해서는 특별히 서방 본문의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비잔틴 본문 증거들(Byzantine Witnesses)

복음서에 대하여: A, E, F, G, H, K, P, S, V, W(마태복음과 누가복음 8:13-24:53에서), Π, Ψ(부분적으로 누가복음과 요한 복음에서), Ω, 그리고 대다수의 소문자 사본들.

사도행전에 대하여: H, L, P, 049와 대다수의 소문자 사본들.

서신에 대하여: L, 049와 대다수의 소문자 사본들.

계시록에 대하여: 046, 051, 051, 052와 대다수의 소문자 사본들.

이와 관련하여 알란트(Aland) 부부가 증거의 등급을 다섯 단계로 분류하고 그 각 등급에 속하는 사본들의 목록을 도표로 제시해 놓았다(Kurt Aland und Barbara Sland,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Deutsche Bibel Gesellschaft 1982, S. 167-70). 본문비평을 할 때에 참조하는 것이 좋다.

어떤 읽기를 본문으로 선택하는 본문비평적 판정은 증거 사본들의 성격과 그 질적 등급을 알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다. 질적으로 동일한 등급의 사본들이 서로 다른 읽기를 증거하거나 어떤 읽기에 대하여 이른바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가 상반되는 읽기를 증거하는 경우에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이러한 경우에 적용해야 할 법칙이 있다. 이것을 비평 규칙/원칙/기준(rules/principles/criteria/canons of criticism)이라고 한다. GNT 위원회가 적용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Bruce M. Metzger, op. cit., pp. 11^{*}-14^{*}).

비평의 기준

A. 외적 증거(External Evidence)

1. 일반적으로 더 이른(earlier) 사본의 증거에 후대의 사본보다 더 큰 무게를 두어야 한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서의 연령 자체보다도 그 문서가 구현하는 그 본문의 연대와 성격이 더 중요하며 사본을 산출할 때에 필사자가 기울인 조심성이 어떠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2. 어떤 하나의 읽기를 지지하는 사본들의 지리적 분포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안디옥, 알렉산드리아와 골(Gaul)에서 유래한 사본들이 어떤 하나의 읽기를 지지하는 데 일치한다면, 다른 조건들은 동일한 경우에, 한 지역이나 교회 구역을 대변하는 사본들보다도 여러 지역에 유포되어 있

으면서도 어떤 읽기를 일치하게 증거하는 사본들이 더 중요하다. 그렇지만 다른 한 편으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증거들이 실제로 서로 독립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고대 라틴어 번역본 증거들과 고대 시리아어 번역본 증거들 사이의 일치점은 타티안(Tatian)의 『통합복음서』(Diatessaron)에서 생긴 공통의 영향력에 기인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다.

3. 본문들의 계보적 관련성과 증거들의 친족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어떤 읽기를 지지하는 증거들의 수가 단순히 많다는 사실이 반드시 그 읽기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20개의 사본이 x 라는 읽기를 지지하고 단 한 개의 사본이 y 라는 읽기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 20개의 사본이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단일한 사본의 복사물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 사본의 수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y 라는 읽기를 지지하는 그 하나의 사본과 x 라는 읽기를 지지하는 20개 사본들의 그 단일한 조상 사이에 1:1로 비교가 행해져야 한다.

4. 증거는 그 수를 셀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달아야 한다. (Witnesses are to be weighed rather than counted.) 분명한 사례에서 일반적으로 신빙할 만한 것으로 드러나는 증거들이 더 큰 무게를 받을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증거의 가치를 단지 기계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여러 종류의 증거들의 상대적 무게는 읽기의 종류가 다양함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B. 내적 증거(Internal Evidence)

1. 더 어려운 읽기가 더 우수한 읽기이다(lectio difficilior est lectio potior). 특히 이 법칙은 그 의미가 겉보기에는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곰곰이 고려해 볼 때에 정확한 것으로 입증되는 그러한 경우에 적용된다. (여기서 ‘더 어려운 읽기’라는 표현은 ‘그 필사자에게 더 어려운 읽기’를 뜻한다. 그래서 그 필사자는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더 쉬운 표현으로 수정할 유혹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규칙은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2. 더 짧은 읽기가 더 우수한 읽기이다(lectio brevior est lectio potior). 그러나 이 규칙도 다음과 두 경우에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 (1) 필사자의 시각적 착각으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러하다. 즉 동일한 어미로 끝나는 낱말이 인접해 있으면 필사자는 첫째 낱말까지 필사하고 난 다음에 첫째 낱말과 둘째 낱말 사이에 있는 부분을 빠뜨리고 곧바로 둘째 낱말이 있는 자리로 뛰어 넘는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흔히 있다. (2) 필사자가 판단하기에 어떤 표현을 (i) 군더더기(superfluous) 표현으로 여기

거나 (ii) 거친(harsh) 것으로 여기거나 (iii) 경건한 신앙, 예배적 관용(liturgical usage), 또는 금욕적 실천에 모순된다고 여기는 것을 생략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3. 병행 구절들(특히 신약성서 안의 구약성서 인용문과 구약성서 안의 그 본문들, 동일한 사건에 대한 복음서들의 서로 다른 기술들) 사이에 언어상의 불일치를 내포하고 있는 읽기가 언어상으로 일치하는 읽기보다 대체로 더 우수하다. 왜냐하면 필사자들은 이러한 경우에 병행 구절들을 조화시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4. 필사자들의 다음과 같은 일반적 경향을 고려해야 한다.

- (1) 친숙하지 않은 낱말을 더 친숙한 동의어로 대체하는 것.
- (2) 덜 세련된 문법적 형식이나 덜 우아한 표현을 그 당대의 짐작은 말투로 바꾸는 것.
- (3) 본문을 더 매끄럽게 만들기 위하여 대명사, 접속사, 허사(虛辭) 따위를 첨가하는 것.

5. 원저자가 그렇게 썼으리라고 추측되는 내재적 계연성들(intrinsic probabilities)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 (1) 그 저서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저자의 문체와 어휘.
- (2) 앞뒤의 문맥.
- (3) 그 저자의 다른 곳에 나타난 어법과의 조화.

복음서에서:

- (1) 예수의 가르침의 아람어적(Aramaic) 배경.
- (2) 마가복음서의 우위성(priority).
- (3) 문제가 된 그 구절의 형성과 전승에 미친 기독교회 공동체의 영향.

매 경우에 이 모든 기준을 다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어떤 경우에 어느 기준을 더 중요시하고 어느 기준을 덜 중요시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일이 중요하다. 판단의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실제의 경우에 어느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지시해 주는 철칙은 없다. 어떤 증거의 중요성을 평가하거나 어떤 읽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아주 흔히 있다. 또 위에서 제시한 기준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더 어려운 읽기가 오직 후대의 증거들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더 긴 읽기가 오직 더 이른 증거들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두 별개의 사안에 대한 외적 증거의 값

어치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원래의 본문에 관하여 반드시 동일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문비평은 엄격한 법칙에 입각하여 수행해야 하는 것이지만 수학 공식처럼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본문비평은 엄정성이 요구되는 과학인 동시에 종합적 가치판단과 창조적 상상력이 요구되는 예술이다.

5. 본문비평 장치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

GNT⁴의 매 쪽은 본문 난과 비평장치 난으로 구분되어 있다. 본문 난에는 그리스어 본문이 문단 별로 나뉘어져 실려 있고 각 문단 위에 영어 제목을 붙여 놓았고 그 밑에 병행 구절을 표시해 놓았다.

비평장치 난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본문에 채택된 읽기를 지지하는 증거들과 그것에 대한 다른 읽기를 지지하는 증거들을 제시해 놓은 본문비평에 관한 자료 난이요, 둘째는 본문에 인용(citation) 또는 인유(allusion)가 나오는 경우에 그 출처, 어떤 낱말과 의미상으로 관련이 있는 낱말과 그것이 나오는 곳을 표시해 놓은 관련구절 참조 난이요, 셋째는 문단과 단원 나누기가 다른 주요 그리스어 비평본과 영어, 독일어, 불어 번역본에서 GNT⁴와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 다르게 또는 같게 처리되었는지를 표시해 놓은 문단 형성에 관한 난이다.

마태복음 4장 23절-5장 16절의 비평장치를 풀어보자. (다음 쪽의 GNT⁴ 11-12쪽 참조)

1) 4:22와 4:23 사이는 문단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문단 나누기에 대한 정보는 22절 맨 마지막 낱말의 어깨에 붙어 있는 ^m이라는 기호가 지시하는 곳에 있다.

비평장치 난에 ^m이 있는 곳을 찾아가 보면 ^m22 SP: WH // P: TR AD NA M Seg FC REB이라고 적혀 있다.

이 자리에 SP(하위 문단) 나누기가 되어 있는 성서는 WH(Westcott와 Hort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비평본)이다.

// 부호는 진술이 끝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표시한다.

P(보통의 문단) 나누기가 되어 있는 성서는 TR(Textus Receptus), AD(Apostoliki Diakonia), NA(Nestle-Aland의 NTG²⁶), M(Merk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비평본), Seg(La Nouvelle Version Second Revisée), Lu(Luthers Bibel), FC(La Bible en Francais Courant) REB(Revised English Bible)이다.

Ministering to a Great Multitude

(Lk 6.17-19)

23 Καὶ περιῆγεν ἐν ὅλῃ τῇ Γαλιλαίᾳ διδάσκων ἐν ταῖς συναγωγαῖς αὐτῶν καὶ κηρύσσων τὸ εὐαγγέλιον τῆς βασιλείας καὶ θεραπεύων πᾶσαν νόσον καὶ πᾶσαν μαλακίαν ἐν τῷ λαῷ.^a 24 καὶ ἀπῆλθεν ἡ ἀκοὴ αὐτοῦ εἰς ὅλην τὴν Συρίαν· καὶ προσήνεγκαν αὐτῷ πάντας τοὺς κακῶς ἔχοντας ποικίλαις νόσοις καὶ βασάνοις συνεχομένους [καὶ] δαιμονιζομένους καὶ σεληνιαζομένους καὶ παραλυτικούς, καὶ ἐθεράπευσεν αὐτούς.^a 25 καὶ ἠκολούθησαν αὐτῷ ὄχλοι πολλοὶ ἀπὸ τῆς Γαλιλαίας καὶ Δεκαπόλεως καὶ Ἱεροσολύμων καὶ Ἰουδαίας καὶ πέραν τοῦ Ἰορδάνου.^a

The Sermon on the Mount

Matthew 5-7

5 Ἴδὼν δὲ τοὺς ὄχλους ἀνέβη εἰς τὸ ὄρος, καὶ καθίσαντος αὐτοῦ προσῆλθαν αὐτῷ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2 καὶ ἀνοίξας τὸ στόμα αὐτοῦ ἐδίδασκεν αὐτοὺς λέγων,^a

The Beatitudes

(Lk 6.20-23)

- 3 Μακάριοι οἱ πτωχοὶ τῷ πνεύματι,
ὅτι αὐτῶν ἐστὶν 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
4 μακάριοι οἱ πενθοῦντες,
ὅτι αὐτοὶ παρακληθήσονται.
5 μακάριοι οἱ πραεῖς,
ὅτι αὐτοὶ κληρονομήσουσιν τὴν γῆν.¹

¹ 4-5 {B} 4 μακάριοι . . . παρακληθήσονται. 5 μακάριοι . . . τὴν γῆν. ⋈ B C W Δ Θ f¹ f¹³ 28 157 180 205 565 579 597 700 892 1006 1010 1071 1241 1243 1292 1342 1424 1505 Byz [E Σ] Lect it^b, f, q syr^s, p, h, pal cop^{sa}, meg, bo arm eth geo slav Macarius/Symeon Chrysostom^{1/2}; Tertullian Chromatius // 5 μακάριοι . . . τὴν γῆν. 4 μακάριοι . . . παρακληθήσονται. D 33 it^a, aur, c, d, ff¹, g¹, h, k, l vg syr^c cop^{bo}ms Origen Eusebian Canons Chrysostom^{1/2} Theodoret^{vid}; Hilary Ambrose Jerome Augustine

^a 23 P: NA ^a 24 SP: NA // P: MVP ^a 25 SP: WH // P: AD M RSV NRSV // MS: Seg Lu NJB

^a 5.2 NO P: TR AD Seg NIV Lu NJB // P: WH NA M RSV

23 Mt 9.35; Mk 1.39 24 Mk 6.55-56 25 Mk 3.7-8

5.4 οἱ πενθοῦντες . . . παρακληθήσονται Is 61.2-3 5 οἱ πραεῖς . . . γῆν Ps 37.11

- 6 μακάριοι οἱ πεινῶντες καὶ διψῶντες τὴν δικαιοσύνην,
ὅτι αὐτοὶ χορτασθήσονται.
- 7 μακάριοι οἱ ἐλεήμονες,
ὅτι αὐτοὶ ἐλεηθήσονται.
- 8 μακάριοι οἱ καθαροὶ τῇ καρδίᾳ,
ὅτι αὐτοὶ τὸν θεὸν ὄψονται.
- 9 μακάριοι οἱ εἰρηνοποιοί,
ὅτι αὐτοὶ υἱοὶ θεοῦ κληθήσονται.
- 10 μακάριοι οἱ δεδιωγμένοι ἕνεκεν δικαιοσύνης,
ὅτι αὐτῶν ἐστὶν 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b
- 11 μακάριοί ἐστε ὅταν ὀνειδίσωσιν ὑμᾶς καὶ διώξωσιν καὶ
εἴπωσιν πᾶν πονηρὸν καθ' ὑμῶν [ψευδόμενοι]² ἕνεκεν ἐμοῦ.
- 12 χαίrete καὶ ἀγαλλιᾶσθε, ὅτι ὁ μισθὸς ὑμῶν πολὺς ἐν
τοῖς οὐρανοῖς· οὕτως γὰρ ἐδίωξαν τοὺς προφήτας τοὺς
πρὸ ὑμῶν.^c

Salt and Light
(Mk 9.50; Lk 14.34-35)

13 Ὑμεῖς ἐστε τὸ ἅλας τῆς γῆς· ἐὰν δὲ τὸ ἅλας μωρανθῇ,
ἐν τίνι ἀλισθήσεται; εἰς οὐδὲν ἰσχύει ἔτι εἰ μὴ βληθὲν
ἔξω καταπατεῖσθαι ὑπὸ τῶν ἀνθρώπων.^d 14 Ὑμεῖς ἐστε
τὸ φῶς τοῦ κόσμου. οὐ δύναται πόλις κρυβῆναι ἐπάνω
ὄρους κειμένη· 15 οὐδὲ καίουσιν λύχνον καὶ τιθέασιν
αὐτὸν ὑπὸ τὸν μῶδιον ἀλλ' ἐπὶ τὴν λυχνίαν, καὶ λάμπει
πᾶσιν τοῖς ἐν τῇ οἰκίᾳ. 16 οὕτως λαμψάτω τὸ φῶς ὑμῶν

² 11 {C} ψευδόμενοι ⋈ B C W Δ Θ f¹ f¹³ 28 33 157 180 205 565 579 597 700 892
1006 1010 1071 1241 1243 1292 1342 1424 1505 Byz [E Σ] Lect it^{a2}. aur. f. ff¹. l. q vg syr^c.
p. h. pal cop^{sa}. meg. bo arm eth geo slav Origen^{1/2} Basil Apostolic Constitutions Gregory-
Nyssa Didymus Epiphanius Chrysostom Cyril Hesychius Theodoret; Chromatius^{1/2}
Jerome Rufinus Augustine^{6/11} // omit D it^b. c. d. g¹. h. k syr^s Origen^{1/2}; Tertullian Hilary
Lucifer Ambrosiaster Ambrose Chromatius^{1/2} Augustine^{5/11} Speculum

^b 10 P: RSV TEV Seg FC NIV VP · 12 NO P: WH // P: TR AD NA M RSV REB NRSV ^d 13 P: NA RSV
TEV FC NIV VP Lu NJB REB NRSV

7 οἱ ἐλεήμονες ... ἐλεηθήσονται Mt 18.33; Jas 2.13 8 Ps 24.3-4 9 εἰρηνοποιοί He 12.14;
Jas 3.18 10 μακάριοι ... δικαιοσύνης 1 Pe 3.14 11 Mt 10.22; 1 Pe 4.14 12 οὕτως ... προφήτας
2 Chr 36.16; Mt 23.30, 37; Ac 7.52; He 11.32-38; Jas 5.10 14 τὸ φῶς τοῦ κόσμου Jn 8.12; 9.5;
Php 2.15 15 Mk 4.21; Lk 8.16; 11.33 16 Eph 5.8-9; 1 Pe 2.12

4:23 머리에 *Ministering to a Great Multitude*이 붙어 있고 그 밑에 (Lk 6.17-19)라고 병행절 표시가 붙어 있다.

23절 맨 마지막 낱말의 어깨에 "이라는 기호가 붙어 있다. 각주 표시 기호는 같은 장 안에서는 알파벳 순으로 계속된다.

비평장치 난에 "을 찾아가 보면 "23 C라고 적혀 있다.

이 자리에 P(문단) 나누기를 해 놓은 성서는 NA(Nestle-Aland의 NTG²⁶)이다.

24절 맨 마지막 낱말의 어깨에 °라는 기호가 붙어 있다. 비평장치 난에 이 기호를 찾아가 보면 °24 SP: NA // P: M VP라고 적혀 있다.

이 자리에 SP(하위 문단) 나누기를 해 놓은 성서는 NA (Nestle-Aland의 NTG²⁶)이다. //

P(문단) 나누기를 해 놓은 것은 M(Merk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비평본), VP(La Biblia: Version Populaire)이다.

25절 맨 마지막 낱말에 ^p가 표시되어 있다.

비평장치 난에 ^p를 찾아가 보면 ^p25 SP: WH // P: AD M RSV NRSV // MS: Seg Lu NJB라고 적혀 있다.

SP(하위 문단)로 나누어놓은 것은 WH(Westcott와 Hort의 비평본)이다. //

P(문단)로 나누어 놓은 것은 AD(Apostoliki Diakonia), NA (Nestle-Aland의 NTG²⁶), M(Merk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비평본), RSV(Revised Standard Version), NRSV(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이다.//

MS(major section), 즉 대단원으로 나누어 놓은 것은 Seg(La Nouvelle Version Second Revisee), Lu(Luthers Bibel), NJB(New Jerusalem Bible)이다. GNT⁴도 이 자리에 대단원으로 나누어 놓았다. 4:25와 5:1 사이는 보통 문단이나 문단 사이, 또는 보통 문단과 하위 문단 사이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5-7장의 '산상설교'라는 대단원과 그 앞의 문단 사이로 나누어진 것이다.

5:1 머리에 대단원(major section)의 제목이 붙어 있다. 그것은 The Sermon on the Mount이다. 그 밑에 대단원의 범위가 표시되어 있다. 그 범위는 마태복음 5-7장이다.

2절 맨 끝에 문단 나누기 기호 ^a가 표시되어 있다.

^a를 찾아가 보면 ^a5.2 NO P: TR AD Seg, NIV Lu NJB // P: WH NA M RSV라고 적혀 있다.

NO P는 문단 나누기가 없다는 뜻이다. 이 자리에 문단을 나누지 않은 성

서는 TR(Textus Receptus), AD(Apostoliki Diakonia), Seg(La Nouvelle Version Second Revisée), NIV(New International Version), Lu(Luthers Bibel), NJB(New Jerusalem Bible)이다. //

P(문단)를 나누어 놓은 성서는 WH(Westcott and Hort의 비평본), NA(Nestle-Aland의 NTG²⁶), M(Merk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비평본), RSV(Revised Standard Version)이다.

5:3 앞에 문단의 제목이 붙어 있다. 그것은 Beatitude이고 그 밑에 Lk 6.20-20이라는 병행절이 () 안에 표시되어 있다.

5절 맨 끝에 ¹이라는 기호가 붙어 있다. 아라비아 숫자는 본문비평적 문제를 지시한다.

비평장치 난에 ¹을 찾아가 보면 긴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즉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¹ **4-5** {B} 4 μακαριοι...παρακληθησονται. **5** μακαριοι...την γην. **⊗** B C W Δ Θ ^f ^f³ 28 157 180 205 565 579 597 700 892 1006 1010 1071 1241 1292 1342 1424 1505 Byz [E Σ] Lect it^b, f. q Syr^s, p, pal cop^{sa}, meg, bo arm eth geo slav Macarius/Symeon Chrysostom^{1/2}; Tertullian Chromatius // **5** μακαριοι...την γην. **4** μακαριοι...παρακληθησονται. D 33 it^a, aur, c, d, ff1, g1, h, k, ¹ vg syr^c cop^{boms} Origen Eusebian Canons Crystostom^{1/2} Theodoret^{vid}; Hilary Abrose Jerome Augustine라고 제시되어 있다.

¹ 은 각주 번호이고 **4-5**는 각주가 논의할 내용이 본문 속에 있는 위치를 가리킨다. 즉 4-5절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

{B}는 위원회가 본문을 채택하기로 결정한 확실성의 등급을 표시한다. B는 위원회의 결정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뜻한다.

4 μακαριοι...παρακληθησονται. **5** μακαριοι...την γην. 이것은 각주의 본문비평이 논의할 대상을 제시해 놓은 것이다. 즉 4-5절 전체가 그 대상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4절과 5절 중간에 각각 생략 부호 ...를 썼다.

⊗ B C W Δ Θ ^f ^f³ 28 157 180 205 565 579 597 700 892 1006 1010 1071 1241 1292 1342 1424 1505 Byz [E Σ] Lect it^b, f. q Syr^s, p, pal cop^{sa}, meg, bo arm eth geo slav Macarius/Symeon Chrysostom^{1/2}; Tertullian Chromatius는 본문에 있는 읽기를 지지하는 증거들을 제시한 것이다. 증거를 나열하는 차례는 파피루스 사본, 대문자 사본, 소문자 사본, 성서일과표, 고대어 번역본, 교부의 순서이다. 그리스 교부와 라틴 교부 사이에는 세미콜론(;)을 찍는다.

파피루스 사본은 지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B C W Δ Θ는 본문의 읽기를 지지하는 대문자 사본들이다.

$f^1 f^3$ 28 157 180 205 565 579 597 700 892 1006 1010 1071 1241 1292 1342 1424 1505는 본문의 읽기를 지지하는 소문자 사본들이다. 소문자 사본의 나열 순서는 번호순이지만 다만 친족 집단(f^1 과 f^3)은 맨 앞에 제시한다.

Byz [E Σ]는 본문의 읽기를 지지하는 비잔틴 사본이다. Byz라는 기호는 비잔틴 사본의 거의 대다수가 본문의 읽기를 지지한다는 것을 뜻한다. [E Σ]는 비잔틴 사본들 가운데서 중요한 몇 개를 대표적으로 제시해 놓은 것이다. E와 Σ는 대문자 사본이지만 비잔틴 본문 유형을 담고 있는 사본이다.

Lect은 거의 모든 성서일과표(lectionaries)와 희랍 교회의 Apostoliki Diakonia의 성서 일과표가 본문의 읽기를 지지한다는 것을 뜻한다.

it^{b, f, q} Syr^{s, p, pal} cop^{sa, meg, bo} arm eth geo slav는 본문의 읽기를 지지하는 고대 번역들이다. 번역본을 나열하는 순서는 라틴어, 시리아어, 콥트어, 아르메니아어, 에티오피아어, 게오르기아어, 슬라브어의 순이다.

it^{b, f, q}는 본문의 읽기를 지지하는 고대 라틴어 번역의 사본들이다. 어깨에 붙인 ^{b, f, q}는 라틴어 번역본의 세 실례를 대표적으로 제시해 놓은 것이다.

Syr^{s, p, pal}는 본문의 읽기를 지지하는 시리아어 번역들이다. 어깨에 붙인 ^{s, p, pal}는 시리아어 번역의 세 실례이다.

cop^{sa, meg, bo}는 본문의 읽기를 지지하는 콥트어 번역의 세 실례이다.

arm eth geo slav는 본문의 읽기를 지지하는 아르메니아어, 에티오피아어, 게오르기아어, 슬라브어 번역을 가리킨다.

// 기호는 본문을 지지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기술(記述)이 끝나고 다른 항목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뜻한다. // 다음에는 새로 논의할 다른 읽기의 내용을 제시했다.

5 μακαροὶ...την γην. 4 μακαριοὶ...παρακληθησονται.는 본문에 채택된 읽기와 다른 읽기의 내용이다. 그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5절과 4절에 각각 생략 부호 ...를 사용했다. 이것은 본문란의 본문과 무엇이 다른가? 그것은 4절과 5절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즉 본문란의 본문은 4-5절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것과 달리 다른 읽기는 5-4절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D 33 it^{a, aur, c, d, ffl, gl, h, k, l} vg syr^c cop^{boms} Origen Eusebian Canons Crysostom^{1/2} Theodoret^{vid.}, Hilary Abrose Jerome Augustine는 이 다른 읽기를 지지하는 증거들이다.

D는 이 읽기를 지지하는 대문자 사본이고 33은 이 읽기를 지지하는 소문

자 사본이다.

it^{a, aur, c, d, ff1, g1, h, k}는 이 읽기를 지지하는 고대 라틴어 번역들이며 어깨에 붙인 a, aur, c, d, ff1, g1, h, k, l¹는 그 실례들이다.

vg는 세 불가타 인쇄본(vg^{cl}, vgst, vg^{ww})이 읽기를 지지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syr^c는 Cuerton이 발견한 시리아어 번역이 이 읽기를 지지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cop^{boms}는 콕트어 방언인 보하이르어(Bohairic) 번역의 사본(ms는 인쇄본이 아니고 사본 상태로 있는 것을 뜻한다)이 이 읽기를 지지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Origen Eusebian Canons Crystostom^{1/2} Theodoret^{vid.}, Hilary Ambrose Jerome Augustine는 교부들의 글 속에 이 읽기를 지지하는 인용이 들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Crystostom^{1/2}는 크리소스톰의 글 속에 이 구절이 2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번이 이 읽기를 지지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Theodoret^{vid.}는 Theodoret의 글의 보존 상태가 나빠 판독하기 어려워서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읽기를 지지하는 것으로 짐작된다는 것을 뜻한다.

모든 증거에 의거하여 전체적 판단을 내리자면 본문란에 채택된 읽기를 증거하는 사본들이 더 오래된 것이고 질적으로 더 우수한 것이다. 이 외적 증거에 의거하여 본문에 채택된 읽기가 원래의 본문에 가깝다고 판정 내릴 수 있다. 다른 읽기를 지지하는 증거들은 주로 서방 본문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 필사자들은 3절의 πτωχοι(가난한 사람들)와 5절의 πραεις(온유한 사람들)를 밀접하게 병행시키기 위하여 4절과 5절의 순서를 바꾸었을 것이다.

관련구절 참조 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23 Mt 9.35; Mk 1.39 **24** Mk 6.55-56 **25** Mk 3.7-8

5.4 οι πενθουντες...παρακληθησονται Is 61.2-3 **5** οι πραεις...ην
Ps 37.11

관련구절 참조 난은 번역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번역자는 번역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같은 낱말이나 관련 있는 구절을 다른 곳에서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참조해 보아야 한다. 이 참조 난은 이 일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준다.

4장 23절과 관련된 구절은 Mt 9:35와 Mk 1:39이고 24절과 관련된 구절은 Mk 6:55-56이고 25절과 관련된 구절은 Mk 3:7-8이다.

5:4의 οι πενθουντες...παρακληθησονται는 Is 61:2-3의 내용을 반영하며 5절의 οι πραεις...γην는 Ps 37:11의 내용을 반영한다. 이 둘은 인용문에 속하지는 않는다. 인용문은 볼드체(bold-faced types)로 인쇄한다.

10절 끝에 ^b가 표시되어 있다. 비평장치 난에 ^b가 표시되어 있는 곳을 찾아가 보면

^b10 P: RSV TEV Seg FC NIV VP라고 적혀 있다. P: RSV TEV Seg FC NIV VP는 본문에 ^b가 표시된 자리에 문단 나누기를 해놓은 성서들이 어떤 것들인지 제시한 것이다.

12절 끝에 문단 나누기 기호 ^c가 붙어 있다. 비평장치 난에 ^c가 붙어 있는 곳을 찾아가 보면 ^c12 NO P: WH // P: TR AD NA M RSV REB NRSV라고 적혀 있다. 문단을 나누지 않은(NO P) 성서는 WH(=Westcott and Hort의 비평본)이고 문단(P)을 나누어 놓은 성서는 TR(=Textus Receptus), AD(=Apostoliki Diakonia), NA(=Nestle-Aland의 NTG²⁶), M(=Merk의 비평본), RSV, REB(=Revised English Bible), NRSV이다.

13절 끝에 문단 나누기 기호 ^d가 표시되어 있다. 비평장치 난에 이것이 표시된 곳을 찾아가 보면 ^d13 P: NA RSV TEV FC NIV VP Lu NJB REB NRSV라고 적혀 있다. 본문에 ^d가 표시되어 있는 자리에 문단을 나누어 놓은 성서들이 열거되어 있다. NA는 NTG²⁶이고 RSV TEV NUV NJB REB NRSV는 영어번역본이고 FC VP는 불어 번역본이고 Lu는 Luther의 독일어 번역본이다.

13절 머리에 Salt and Light라는 문단의 제목이 붙어 있고 그 밑에 (Mk 9.50; Lk 34-35)라고 병행절 표시가 되어 있다.

11절 중간에 나오는 [ψευδομενου]라는 낱말에 본문비평 기호 ²가 표시되어 있다. 비평장치 난에 ²가 표시되어 있는 곳을 찾아가 보면

2 11 {C} ψευδομενου ⌘ B C W Δ Θ ^f ^f³ 28 157 180 205 565 579 597 700 892 1006 1010 1071 1241 1292 1342 1424 1505 Byz [E Σ] Lect it^{a?}, aur, f, ff1, l, q vg Syr^{c, p, h, pal} cop^{sa, meg, bo} arm eth geo slav Origen^{1/2} Basil Apostolic Constitutions Gregory-Nyssa Didymus Epiphanius Chrysostom Cyril Hesychius Theodoret; Chromatius1/2 Jerome Rufinus Augustine^{6/11} // omit D it^{b, c, d, g1, h, k} syr^s Origen^{1/2}; Tetullian Hilary

Lucifer Ambrosiaster Ambrose Chromatius^{1/2} Augustine^{5/11} Speculum이라고 적혀 있다.

{C}는 위원회가 이 읽기에 대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표시한다. 그래서 그 읽기를 []로 묶어서 본문에 넣어 놓았다.

ψευδομενοι는 본문비평적 논의의 대상이다. ψευδομενοι가 들어 있는 읽기와 그것이 빠져 있는 읽기가 있는데 들어 있는 것을 지지하는 증거는 **ⲛ B C W Δ Θ f¹ f³ 28 157 180 205 565 579 597 700 892 1006 1010 1071 1241 1292 1342 1424 1505 Byz [E Σ] Lect it^{a?}, aur, f, ff1, l, q vg Syr^{c, p, h, pal} cop^{sa, meg, bo} arm eth geo slav Origen^{1/2} Basil Apostolic Constitutions Gregory-Nyssa Didymus Epiphanius Chrysostom Cyril Hesychius Theodoret; Chromatius^{1/2} Jerome Rufinus Augustine^{6/11}이다. 이 가운데서 그리스어 사본들의 증거는 5:4-5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Lect(=거의 대다수의 성서일과표+Apostoliki Diakonia의 성서일과표)의 증거도 이것을 증거한다.**

it^{a?}, aur, f, ff1, l, q는 고대 라틴어 번역을 지시하는데 어깨에 붙인 기호는 그 번역의 실례이다. ^a에 붙인 [?] 기호는 a 사본이 이 읽기를 지지하는지 확실하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vg는 불가타 역본의 대표적 세 인쇄본을 가리킨다.

Syr^{c, p, h, pal}는 이 읽기를 지지하는 시리아어 번역들이고 cop^{sa, meg, bo}는 콥트어 가운데서 사히드어(Sahidic), 중부 이집트어(middle Egyptian), 보하이르어(Bohairic)로 번역한 사본을 가리킨다.

arm eth geo slav는 이 언어로 번역된 번역본들이다.

Origen^{1/2} Basil Apostolic Constitutions Gregory-Nyssa Didymus Epiphanius Chrysostom Cyril Hesychius Theodoret; Chromatius^{1/2} Jerome Rufinus Augustine^{6/11}은 이 읽기를 지지하는 교부들이다. Origen^{1/2} Chromatius^{1/2} Augustine^{6/11}에 분수의 분모는 이 구절이 이들의 글 속에 나타난 회수를 가리키고 분자는 여기에 제시된 읽기를 지지하는 회수를 가리킨다. Apostolic Constitutions은 사도헌장을 뜻한다. 고대교회의 법적-의식적 질서를 규정한 법규를 가리킨다. 약 380년에 수집되었는데 누구의 편집인지 알 수 없다.

//는 그 앞뒤에 서로 다른 읽기에 관한 진술이라는 것을 뜻한다.

// 다음의 omit라는 말은 ψευδομενοι라는 낱말이 생략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생략된 읽기를 지지하는 증거는 D it^{b, c, d, g1, h, k} syr^s Origen^{1/2};

Tetullian Hilary Lucifer Ambrosiaster Ambrose Chromatius^{1/2} Augustine^{5/11} Speculum이다.

복음서를 내용으로 하는 D는 05번 사본인 베자 사본(codex Bezae Cantabrigiensis)이다.

it^{b, c, d, g^l, h, k} syr^s는 고대 라틴어 번역과 시리아어 번역을 가리킨다.

Tertullian Hilary Lucifer Ambrosiaster Ambrose Chromatius^{1/2} Augustine^{5/11} Speculum은 이 읽기를 교부들이다. 그들의 글 속에 그렇게 나타나 있다.

사본의 외적 증거에 의거해서 판단하건대 ψευδομενου가 들어 있는 읽기가 더 오래된 읽기라 할 수 있는데 위원회가 확실한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을 생략한 사본들은 주로 서방계 사본들이다. 병행절인 눅 6:22에는 ψευδομενου가 없다. 여기에 맞추기 위하여 그것을 생략했다고 보는 것이 원래 없었던 것을 뺀 오래된 사본의 필사자들이 집어넣었다고 보는 것보다 설득력이 있다.

관련구절 참조 난에 대한 해설은 생략한다(앞 페이지의 관련구절 참조 난 해설을 참조할 것).

6. GNT 제4판은 번역 대본으로서 성공작인가?

GNT 편집위원회가 세운 으뜸되는 목표는 성서번역자들에게 번역의 대본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형태의 비평본을 제작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GNT⁴가 제시해 놓은 구두점 결정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 문단과 단원 나누기에 대한 다양한 실례들, 각 단원에 제목 붙이기, 병행구절 표시, 참조구절 표시 등등은 번역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단히 유용한 장치이다. 성서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성서 본문이다. GNT⁴가 NTG²⁷과 공통의 본문을 채택함으로써 번역자들이 대본 선정에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점에서 GNT⁴는 그 본래적 편집 목적을 충분히 이루었다고 할 것이다.

GNT는 처음부터 NTG와 분명하게 차별적인 목표를 향하여 출발했다.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비평본을 제작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은 본문을 재구성하는 것과 본문에 채택된 읽기를 지지하는 증거들과 그것과 다른 읽기를 지

지하는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신약성서 사본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다른 읽기의 수는 모두 300,000이나 된다. NTG는 이 가운데서 약 10,000 개 곳에 본문비평적 증거를 제시해 놓았다. GNT는 번역을 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읽기에 국한해서 증거를 제시했다. GNT는 다른 읽기에 대한 본문비평적 증거를 제시하는 곳을 약 2,500 군데로 축소했다. 이러한 조치는 GNT의 편집 목적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GNT는 성서 번역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번역의 대본이 된다는 목적과 필요하다면 번역자들이 스스로 본문비평을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시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둘째 목표가 뜻하는 것은 무엇이며 GNT는 이 목표를 이루는 데 성공했는가? GNT 편집 위원회는 거의 대다수 번역자들이 본문비평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GNT 편집 위원회는 본문비평적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 데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기호가 사용된 NTG와 달리 누구도 단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이 채용한 이 기술(記述) 방법은 그들이 세운 목표에서 너무나 멀리 빗나갔다. 왜냐하면 \aleph^* , Byz^{pt} , syr^{hgr} , $\text{p}^{66\text{vid}}$, $\text{Didymus}^{\text{pal}}$ 등등의 수많은 기호의 의미를 당장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이러한 기호를 이해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본문비평을 실행할 능력을 다 갖춘 것은 아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증거 자료의 질적 등급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많은 증거 자료가 나열되어 있더라도 그 자료들의 질을 구별하지 못하면 그것들은 본문비평을 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GNT 편집 위원회가 본문비평적 전문 지식이 없는 번역자들에게 본문비평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를 진정으로 원했다면 증거 자료를 단순히 나열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하여 그들 사이의 질적 구별을 표시해 주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알렉산드리아 본문을 지지하는 일등급 사본을 빨간 색으로, 서방 본문을 지지하는 2등급 사본을 초록색으로, 가이사라 본문을 지지하는 3등급 사본을 파랑색으로, 비잔틴 본문을 지지하는 4등급 사본을 회색으로 표시해 놓았더라면,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매 항목마다 특정한 읽기를 본문으로 결정하는 데 의거한 판단 기준/규칙을 번호로 표시해 놓았더라면 본문비평 장치는 그 본래의 목적을 100% 성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GNT⁴의 본문비평 장치는 번역자들에게 본문비평적 판단을 스스로 하도록 하는 데 유용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에게 GNT⁴가 가장 신용할 만한 권위 있는 비평본이라는 확신을 심어주

는 효력을 내는 데 더 유용한 것이다.

신약성서 번역자에게 허용된 본문비평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구두점과 문단 결정 분야 이외에는 별로 크지 않다. 그러나 이 분야조차도 공적(公的) 번역을 위임받은 사람에게는 그에게 이 일을 위임한 공적 기관이 선정한 번역 대본으로부터 이탈할 자유가 거의 허용되어 있지 않다. 만일 사역(私譯)을 하는 번역자에게는 이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넓게 열려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번역자는 GNT⁴의 비평장치를 이용하기보다는 NTG²⁷의 비평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신약성서 번역은 구약성서 번역과 비교할 때에 본문비평적 문제로 고민을 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신약성서의 본문은 구약성서의 본문과는 달리 거의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복원되어 있는 상태이며 그 본문은 의미가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문비평은 신약성서 번역자보다는 구약성서 번역자에게 더 절실하게 요청되는 과제와 의무이다.

본문비평과 본문번역은 동맹 관계에서 출발하면서도 그 작업의 진행 방향은 정반대이다. 성서 번역이 성서의 본문비평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둘은 동맹 관계에서 있다. 그러나 본문비평은 표현이 더 세련되고 더 선명한 읽기를 찾아내는 것을 목표점으로 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거칠고 더 어려운 표현이라 하더라도 원본문(原本文)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는 더 오래된 읽기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와 정반대로 번역은 번역한 말이 더 세련되고 더 선명하고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되도록 문장을 점점 다듬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본문비평가는 $\delta\epsilon$ 라는 접속사가 본문에 들어가야 하느냐 빠져야 하느냐 또는 $\delta\epsilon$ 라는 접속사가 사용되었느냐 $\gamma\alpha\rho$ 라는 접속사가 사용되었느냐는 문제를 놓고 치열한 씨름을 벌여야 하지만 번역자는 원문에 이러한 접속사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문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대로 필요 없는 접속사를 빼기도 하고 필요한 접속사를 집어넣기도 한다. 본문비평가는 본문에 대명사가 사용되었느냐 실명사가 사용되었느냐, 문장의 주어가 동사의 어미 변화 속에 표현되었느냐 주어가 별도로 표현되었느냐를 중요하게 문제삼지마는 번역자는 이해가 쉽게 되게 하기 위해서 자유자재로 대명사를 실명사로 대체하여 번역하기도 하고 번역 언어의 어법상 거주장스럽게 여겨지는 경우에는 주어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번역자의 이러한 자유는 원문의 의미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무제한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

다. 어린이의 그림은 서툴더라도 그 어린이의 마음의 세계를 보여주는 귀중한 창문이다. 어린이의 그림 전람회에 출품할 작품을 미술 담당 교사가 그의 전문가적 세련된 솜씨로 덧칠을 하여 완숙한 그림으로 고쳐서 전시했다면 그 그림은 어린이 그림이 지니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상실한 셈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원문이 조야한 표현으로 씌어 있다면 그 조야한 표현법을 번역문에도 그대로 살려 놓는 것이 원저자의 정신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번역은 돌맹이를 돌맹이로 바꾸어 놓는 작업이지 돌맹이를 보석으로 변화시키거나 보석을 금덩이로 변화시키는 요술이어서는 안 된다.

의과대학의 해부학 강의 교실에는 미술과 학생들도 들어오는 경우가 흔히 있다고 한다. 인체를 조각하거나 그리는 것을 전공으로 하려는 예비 예술가는 근육과 골격 따위의 인체의 보이지 않는 내부의 해부학적 구조까지 알고 있어야만 인체의 외관을 정말로 생동감 있게 묘사해 낼 수 있다고 한다. 사실 그렇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작품에 그들이 알고 있는 해부학적 지식을 직접적으로 노출시키지는 않는다. 성서 번역자가 훌륭한 번역을 하는 데는 올바른 본문비평적 지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적절한 번역의 대본을 선정하는 것은 성공적 번역의 근본 조건이다. 이것은 본문비평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유능한 번역자는 확실한 본문비평적 지식의 바탕 위에서 서 있으면서도 그의 번역문에 본문비평적 이음새의 흔적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문비평과 성서번역은 이면적(裏面的)으로는 절실한 동맹 관계이어야 하지만 표면으로는 그들의 절친한 관계가 노출되지 않도록 숨겨 두어야 한다.

<Abstract>

Textual Criticism for Bible Translation

Chang-Nack Kim

Good translation is based on good textual criticism. Success in translating the New Testament into Korean depends upon the selection of the best critical edition of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A translator should have full understanding of textual criticism in order to make a wise decision as to what is the best Greek text of the New Testament. It is not necessary, however, to become a textual critic before acting as a translator. It is sufficient to be capable of utilizing the results of professional textual critics' work.

This article first reviews the history of the printed editions of the Greek New Testament, from the time of the Textus Receptus of the 16th century to the 20th century's new standard text. It goes on to explain the critical apparatus of the Greek New Testament of UBS as well as the canons of textual criticism applied to this edition. In conclusion it deals with a short evaluation of the GNT⁴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extual criticism and Bible translation.